DOCUMENT RESUME

ED 056 597 FL 002 704

TITLE	Korean Advanced Course: Volume II.
INSTITUTION	Defense Language Inst., Washington, D.C.
SPONS AGENCY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REPORT NO	06KP24
PUB DATE	Jul 71
NOTE	214p.
AVAILABLE FROM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ion, Department of the Army, U.S. Naval Station, Anacostia Annex, Washington, D.C. 20390 (With specific permission)
EDRS PRICE	MF-$0.65 HC Not Available from EDRS.
DESCRIPTORS	Cultural Education; *Instructional Materials; *Intensive Language Courses; *Korean; Korean Culture; *Language Instruction; Reading Development; *Reading Instruction; Reading Materials; Vocabulary Development

ABSTRACT

This is the second of seven readers, prepared by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 continuation training in Korean after the Basic Course. The 20 reading lessons, printed in Korean script, have been drawn from several reader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70. Each unit concludes with a set of questions and a vocabulary. Special emphasis has been directed to such subjects as space travel, natural resources, industrial development, and cultural activities. Several illustrations are included. (RL)

ED056597

KOREAN

ADVANCED COURSE

VOLUME II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OFFICE OF EDUCATION
THIS DOCUMENT HAS BEEN REPRODUCED EXACTLY AS RECEIVED FROM THE PERSON OR ORGANIZATION ORIGINATING IT. POINTS OF VIEW OR OPINIONS STATE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OFFICIAL OFFICE OF EDUCATION POSITION OR POLICY

FL002 704

July 1971

DEFENSE LANGUAGE INSTITUTE

DEFENSE LANGUAGE INSTITUTE

This pamphlet is for use by the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solely for official purposes. It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It may NOT be released to other persons, quoted or extracted for publication, or otherwise copied or distribut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in each instance from the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PERMISSION TO REPRODUCE THIS COPYRIGHTED MATERIAL BY MICROFICHE ONLY HAS BEEN GRANTED BY

Defense Language Institute

TO ERIC AND ORGANIZATIONS OPERATING UNDER AGREEMENTS WITH THE U.S. OFFICE OF EDUCATION. FURTHER REPRODUCTION OUTSIDE THE ERIC SYSTEM REQUIRES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Roy M. Kessler

ROY M. KESSLER
Colonel, USA
Director

PREFACE

This is the second of seven readers for continuation training in Korean after the Basic Course.

The 20 articles contained herein have been drawn from several reader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70.

Each unit concludes with a set of questions and a vocabulary.

Special emphasis has been directed to such contemporary subjects as Space Travel, The Truth about North Korea, and so fo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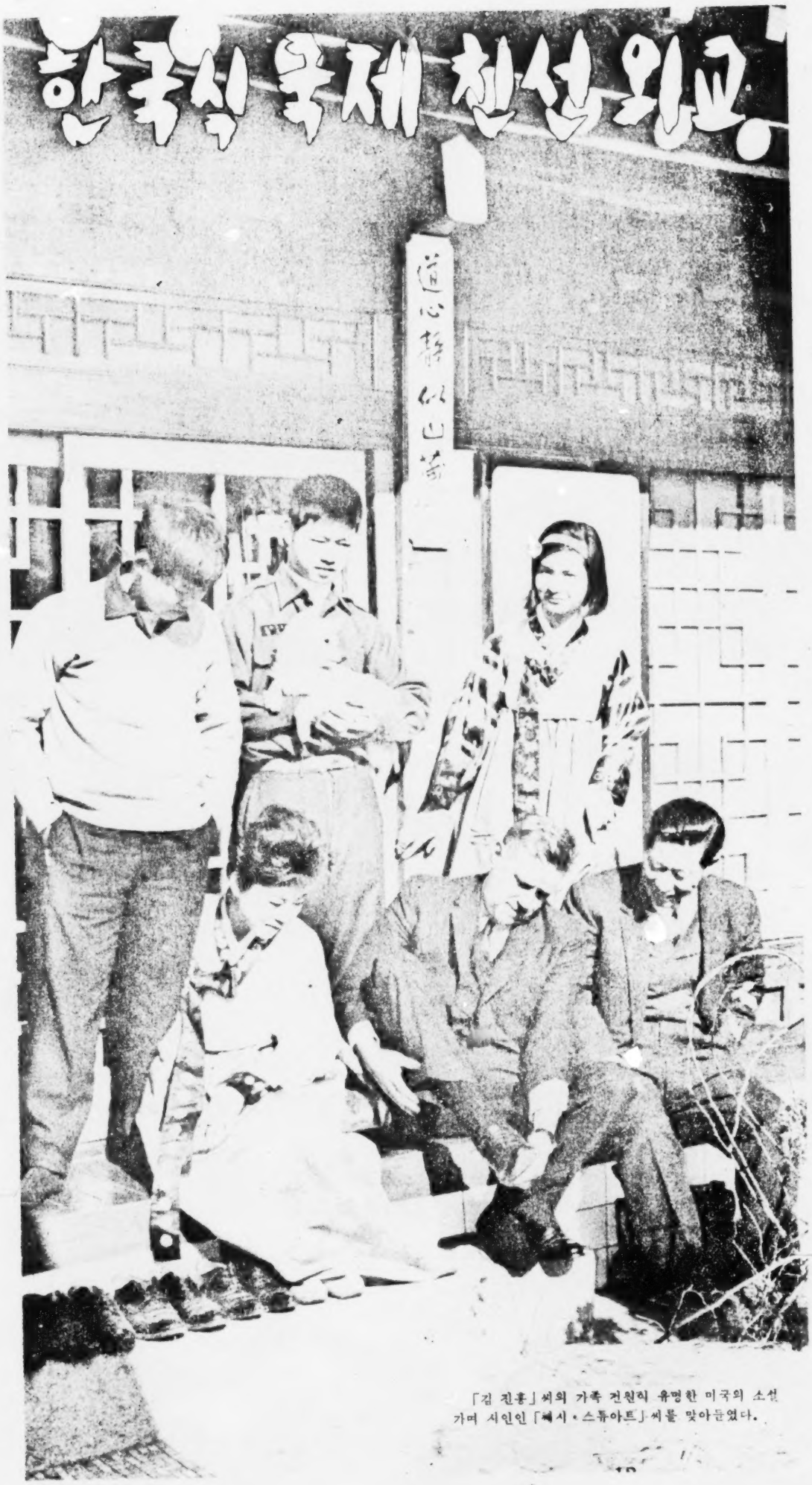
Each instructor is free to use this material in the manner most advantageous to his students. Coverage and sequencing of the units are flexible; not all need be covered by advanced students.

All inquiries concerning these materials, including requests for authorization to reproduce, should be addressed to the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U.S. Naval Station, Anacostia Annex, Washington, D. C. 20390

TABLE OF CONTENTS

Unit

1. Democracy and Capitalism
2. Institutions that Help Industry
3. Telephone
4. Visiting the Radio Broadcasting Station
5. A Cotton Plant
6. The Stethoscope
7. Secrets of the Ocean
8. Exploring the Polar Region
9. Space Travel
10. Nature's Resources
11. The Knightings of Don Quixote
12. With Uncle
13. After Reading a Book
14. After Listening to a Lecture
15. (Beethoven's) Moonlight Sonata
16. The Pulguk Temple
17. Looking into the Traditional Arts & Crafts
18. King Sejong
19. The Truth About North Korea
20. The Chunlima Movement in North Korea



「김 진홍」씨의 가족 건천의 유명한 미국의 소설
가며 시인인「헤시·스튜아트」씨를 맞아들였다.

5

6

7

Unit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

민주주의란 그 뜻이 아주 넓어서 한 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면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장 근본된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귀중함을 깨닫고 인권(人權)을 존엄하게 여기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 도와 가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 것이다. 남을 함부로 억누름이 없이 사람마다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값어치가 크고 귀한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물건인 이상 아무리 그 값어치가 크고 귀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소용되는 것밖에 안 된다. 금은 보석이며 훌륭한 건물이나 좋은 기계 들은 다 값이 비싼 것이겠지만,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인간 생활에 소용되는 물건,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을 하는 데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 자체가 높고도 위엄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서 사람을 한갓 물건과는 달리 인격(人格)이라고 한다.

인격은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존엄하며, 다 함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에 자유로운 것이다. 사람의 권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날 적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이 존중함은 인격이 존엄하기 때문이요, 인격이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의 정신

자유라 함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한 바대로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외부로부터 어떠한 속박도 받지 않는 동시에 어떤 일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인 이성(理性)에 좇아서 올바르게 행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규칙이나 법률에 좇는 일은 자유의 행동과 합치한다. 규칙이나 법률은 사람의 이성에서 지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동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용되는 물건이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우리 소망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거나 직업을 골라잡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이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개성(個性)에 맞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그 밖의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가 작정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가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이미 오래이며, 옛날 그리이스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 시초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자기의 권력(權力)을 함부로 하여 백성의 의사를 아주 무시하였기에 이에 대항하여 백성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즉, 백성을 주로 하는 민주(民主)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생각은 근세(近世)에 이르러 더욱 중히 여기게 되었다. 즉, 프랑스의 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유, 평등, 박애(博愛)라는 세 가지를 내세우고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는 임금이나 귀족의 권리와 다름없이 온 백성이 다 함께 자유롭게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널리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출발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革命)으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귀족의 압제 아래서 살던 일반 시민(市民)들이 온 유럽을 통하여 새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어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된 것이다. 프랑스말로 그들을 '부르지와'라고 한다.

이제 '부르지와'들은 자기 마음껏 재산을 모으는 자유를 누리었다.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자본(資本)이 중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본을 들이면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은 정한 이치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즉, 자본을 본위로 많은 이득을 보아 경제적 세력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면에서 큰 권세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부르지와'라는 말이 자본가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새로 일어난 일반 사회 시민들이 자본가로 되고 보니 모든 사회 제도가 그전과는 아주 달라지게 되었다. 중세기의 봉건(封建) 시대에는 귀족이 되면 그만이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었다. 그러나, 이

제는 누구나 자유로 영리 사업을 잘 해서 많은 이익을 보아 자본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큰 세력을 이루게 된 데에는 다만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었다는 것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산업 혁명이다. 이는 18세기 후반기로부터 기계의 발달에 따라, 특히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킨 일이다. 그것은 맨 먼저 영국에서 시작하여 널리 유럽의 여러 나라에 미쳐 갔다.

큰 규모로 생산을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 내므로 거기에는 큰 자본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서로 많은 생산으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생기고, 여기에 나라가 그 뒷받침을 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자본주의는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부강(富强)을 이룩하였고, 유럽 여러 나라들과, 이에 발을 맞추어 간 미국이 근대 이래로 세계에 앞선 나라로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한 자본주의는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의 커다란 공헌

을 해 주었다.

그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가 신분의 구분이 없이 평등하며, 자유로이 자기 능력과 소질을 발휘함으로써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준 점이다. 인간에게 이와 같은 신념을 준 것이 민주주의라면, 자본주의는 그것을 사실로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한 공헌은 그 나라의 급속한 부강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일찍 자본주의 체제에 눈을 돌려 이를 실천한 나라들은 급속하게 부강하여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반면에,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처지게 되었음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福祉)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가장 튼튼한 지주(支柱)가 되고 있다.

QUESTIONS

1. 민주주의의 뜻은 어떤 면에 걸쳐 있읍니까?
2. 무엇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입니까?
3. 어떻게 살자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일까요?
4. 이 세상에서 모든 물건이 왜 그 자체가 귀하다고 하지않습니까?
5. 인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6.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를 가지고있어요?
7. 평등한 권리는 무엇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장할수있어요?
8.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 理性이란 무슨 뜻입니까?
10. 사람의 이성에서 지어 낸 것이 무엇입니까?

11. 민주주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12. 백성을 주로 하는 정치가 왜 필요했읍니까?
13.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무엇을 내세웠읍니까?
14.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누가 세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15. 누구를 '브르지와'라고 했읍니까?

16. 자본주의가 어떻게생겼읍니까?
17. 귀족만이 자본가로 될 수있었어요?
18. 산업 혁명이 무엇입니까?
19. 무엇이 나라의 부강을 이룩하였어요?
20.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공헌을 한것이 무엇이겠읍니까?

14

VOCABULARY

인권		human rights
존엄하다		to be dignified, solemnified
보석		jewel
수단		means
위엄		dignity
인격	人格	personality, especially
행사하다		to exercise
침범		invasion
이성	理性	reason
합치하다		to agree with
구태여		deliberately
재산		property
개성		individuality
근세	近世	recent era
박애		philanthropy
귀족		nobility
봉건시대	封建時代	feudal age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부강	富强	wealth and power
공헌		contribution
소질		qualities
후진국	後進國	backward nation
복지	福祉	well-being
번영		prosperity
지주	支柱	support, prop, stay

Unit 2

상업을 돕는 기관

상공 회의소, 상업 흥신소, 상품 검사소 등은 직접 상업을 경영하지는 않으나 상업이 그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들이다. 이런 기관의 기능을 알아보자.

1. 상공 회의소

상공 회의소

상공 회의소는 각 도시에 만들어지는 기관으로서, 상공업의 개선,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 곳의 상공업자가 조직한 것이다. 여기서는 상공업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도시에 지방 상공 회의소가 있고, 서울에 중앙 상공 회의소인 대한 상공 회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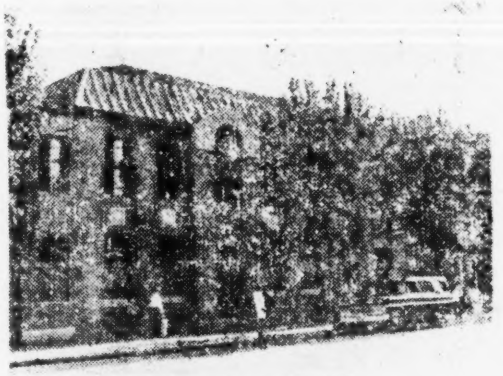
2. 상업 흥신소

상업 흥신소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편의 신용을 알기 위하여 상업자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일반의 의뢰를 받아 상대편 경영자의 인물이나 재산 상태, 영

업 성적 등을 조사하여 보고해 주고 보수를 받는다.

3. 상품 검사소

상품 검사소는 상품의 검사를 전문으로 맡아 보는 기관이다. 상품을 검사함으로써 그 품질을 높이고 규격을 통일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출하는 상품의 검사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 검사 기관이 없다면 나쁜 품질의 상품이 외국에 나가게 되어, 그 상인이나 상품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 농산물 검사소

4. 상공 장려관

국산품 전시장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상공 장려관은 전시장을 마련하여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국산품의 선전을 꾀하며 상공업의 발전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보고 있다.

상품 진열소, 물산관 등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관들이다.

박람회나 견본시도 진열소와 같은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나, 상설되지 않고 보통 정기적으로 열리는 점이 다르다.

5. 대한 무역 진흥 공사

대한 무역 진흥 공사

대한 무역 진흥 공사는 우리 나라의 수출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만든 공공 기관이다.

여기서는 주로 국산품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공증인 · 변리사 · 공인 회계사

이상 설명한 외에 상업을 돕는 사인(私人)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증인(公證人)

공증인은 일반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민사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또 사서 증서에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인(私人)이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

(2) 변리사(辨理士)

변리사는 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상공부 특허국에 대하여 할 일의 대리를 하는 사인이다. 변리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공인 회계사(公認會計士)

공인 회계사는 종래에는 계리사라고 하였는데, 상공업자의 의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또는 입안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인이다. 공인 회계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또 공인 회계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상업을 돕는 행정 관청

세관(稅關)은 화물의 수출입, 선박의 입출항, 항공기의 이착륙, 보세 지역의 관리 등 외국 무역에 관계되는 감독 및 징세 사무를 취급하는 관청이다.

검품하는 광경

19

세관은 보통 개항, 또는 국경 등에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도 상공부, 재무부, 체신부, 교통부, 외무부 등
상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감독 관청이 있다.

20

QUESTIONS

1. 상공회의소는 무슨 목적으로 누가 조직한것입니까?
2. 상공회의소는 어데있읍니까?
3. 상업흥신소는 무엇을 하기위하여 만든기관입니까?
4. 상업흥신소는 인물조사를 어느정도해줍니까?
5. 상업흥신소는 누가 많이 이용하는 기관입니까?

6. 상품검사소는 무슨일을 맡아보는 기관입니까?
7. 상품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8. 어떤 상품의 검사를 엄격하게해야 합니까?
9. 상품검사소가 없으면 외국무역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10. 상공장려관은 무엇을 꾀하고 무엇을 돕습니까?

11. 상공장려관에서는 무엇을 진열합니까?
12. 박람회하고 상공장려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1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무엇을 위하여 누가 만든것입니까?
14.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주로 외국물건을 취급합니까?
15. 공증인은 무슨 권한을 가진 사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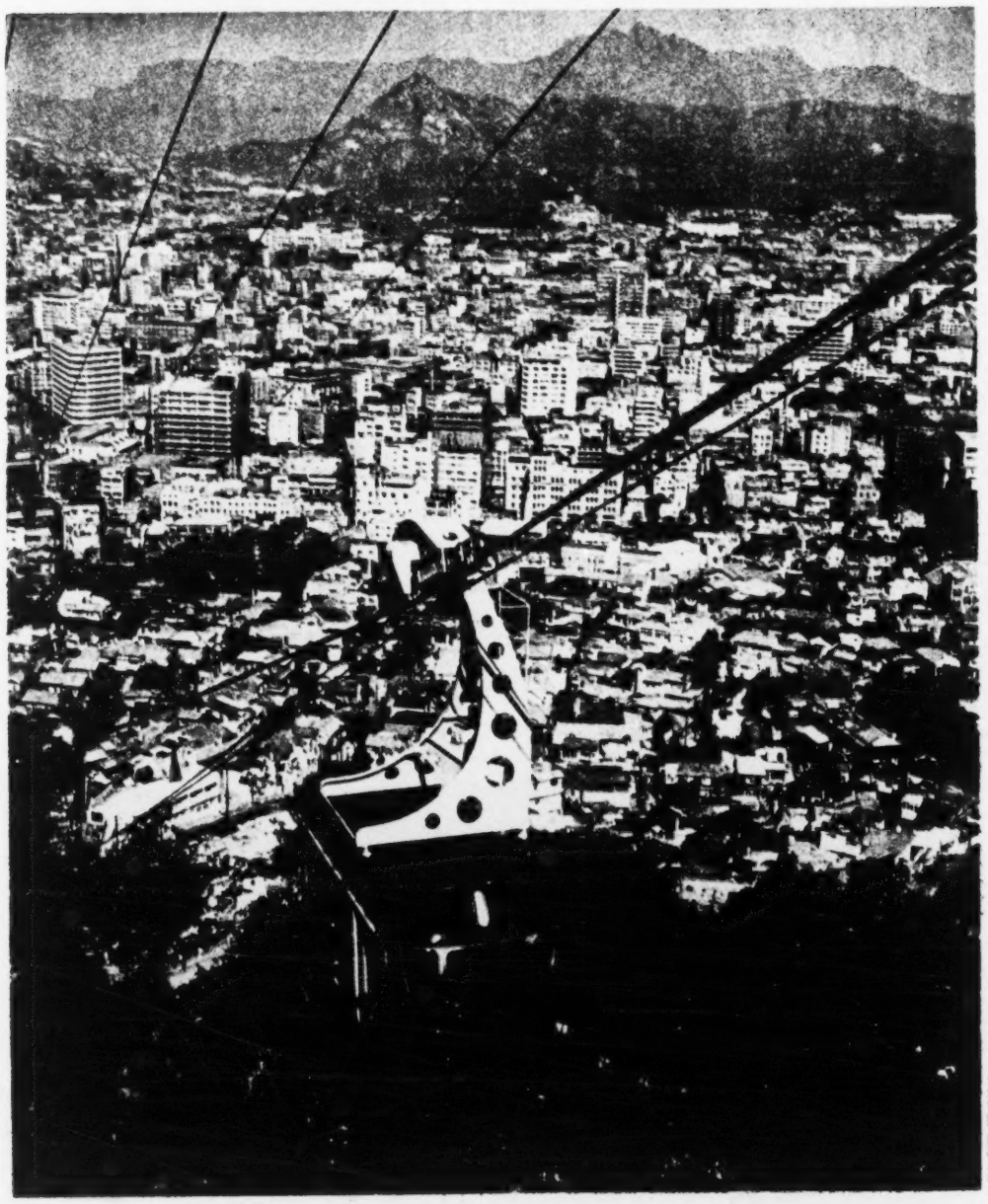
16. 무슨 문서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게 됩니까?
17. 변리사는 무슨일을 보는 사인입니까?
18. 공인 회계사는 무엇을 하는 사인입니까?
19. 세관은 무슨 사무를 취급하는 관청입니까?
20. 세관은 보통 어데 설치되어 있읍니까?

21

VOCABULARY

상공회의소	商工会議所	Chamber of Commerce
흥신소	興信所	credit bureau
상공장려관	商工奬勵館	Commercial and Industrial Museum
무역	貿易	trade
진흥	振興	promotion, furtherance
공사	公社	public corporation
공증인	公證人	notary public
변리사	辨理士	patent attorney
공인회계사	公認会計士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상공업자	商工業者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개선	改善	betterment
조직하다	組織	to organize
꾀하다		to plan, scheme
상대편		the other party
신용	信用	credit
의뢰하다	依賴	to depend on
인물	人物	quality of man
재산상태	財産狀態	one's financial status
보수	報酬	recompense
품질	品質	quality
규격	規格	standard, norm
수출	輸出	export
진열하다	陳列	to display
견본	見本	sample
박람회		exhibition, exposition, fair

Ropeway takes visitors to top of Mount Namsan, which offers a splendid view of Seoul and the surrounding countryside.



23

Unit 3

전 화

미국(美國) 보스턴 시(市)의 맹아 학교에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있었읍니다. 이 선생님은 서기(西紀) 1848 년(年) 영국(英國) 스코틀란드에서 나서, 소년 시대(少年時代)를 그 곳에서 보냈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좋아하여, 그것만 하나 가지면 온종일 혼자 재미있게 노는 성미이었읍니다. 학교에 다닐 때쯤 되면서부터 무슨 일에든지 '왜?' '어떻게 해서?' 하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 보기 때문에 성가실 지경이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형 비행기(模型飛行機)에 취미를 붙여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잊고, 만들었다가는 부수고, 부수었다가는 만들고 하였읍니다.

열 다섯 살 때, 그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하

여 의문(疑問)을 품었읍니다.

"사람은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내는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무슨 까닭일까?"

그는 사람의 소리를 내는 기계(機械)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읍니다.

이 소년의 '왜?' '어떻게 해서?'는 벌써 연구(研究)할 문제(問題)를 발견(發見)한 것이었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혼자 이 궁리 저 궁리를 한 결과(結果), 일 년이 지나서 이 소년은 기묘한 장난감을 만들었읍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처럼 생겼는데, 풀무로 바람을 불어 넣으면, 고무로 만든 입술이 움직여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었읍니다.

스무 살이 지나서 그는 양친(兩親)을 따라 본국(本國)을 떠나 캐나다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그는 그 곳에서 맹아 학교에 취직(就職)하여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교육(教育)을 맡아보게 되었는데, 워낙 연구심(研究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성적(成績)이 좋았읍니다. 이 소문(所聞)은 곧 보스턴까지 퍼져서, 그 곳 맹아 학교의 초청(招請)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말 못 하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爲)하여 편리(便利)한 기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였읍니다.

말을 할 때의 공기(空氣)의 진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계도 연구해 보았고, 그 때에 유명(有名)해진 전신(電信) 기계를 연구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득 다른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전신은 전기(電氣)의 힘으로 점과 금을 그어서 통신(通信)을 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녹소리 그대로 전(傳)할 수는 없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자, 곧 그 연구를 하기로 하였읍니다. 보스턴 시의 어느 전기 기계 파는 집 이 층(二層)에 방을 얻어 가지고, 와드슨이라는 조수(助手)와 함께 목소리를 전

기로 보내는 기묘한 실험을 시작하였읍니다.

원래(元來) 전기와 전신에 대한 전문가(專門家)가 아닌 선생님은, 전문가에게 묻기도 하고, 친구들의 의견(意見)도 청하였읍니다. 그러나, 찬성(贊成)하는 사람보다도,

"뭐, '말하는 장난감'을 만들어? 전기한테 무슨 말을 시킨단 말이오?"

하고 비웃는 사람이 더 많았읍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까지 있었읍니다.

스물 여덟 살 때,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와싱턴에 간 일이 있었읍니다. 선생님은 그 편에 유명한 전기 학자(學者) 조우지프 헨리 박사(博士)를 찾아가, 자기(自己)가 연구하는 목적(目的)을 말하고 나서,

"저에게는 이 연구를 완성(完成)하는 데 필요(必要)한 전기의 지식(知識)이 없읍니다."

하고 좋은 의견을 청하였읍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박사는, 일흔 여덟 살 된 노인 같지도 않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읍니다.

"그런 큰 발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않은가?"

존경하던 대과학자(大科學者)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결심(決心)은 더욱 굳어졌읍니다. 그 후(後)부터는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와 연구에 골몰하였읍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근처(近處)에 있는 병원(病院)에서 사람의 귀를 하나 얻어 왔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귀에다 입김을 불어 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읍니다. 이것은 고막이 울리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선생님이 정말 미쳤다고 야단들이었읍니다.

사람의 귀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선생님은 고막 대신에 얇은 철판(鐵板)을 전기로 진동시켜 보고 싶었읍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선생님의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어느 덧 달이 가고 철이 바뀌어, 또 삼 년이 지났읍니다. 창 밖의 나뭇잎이 새파랗게 우거진 어느 여름날, 선생님은 오늘도 철사와 자석과 시계(時計) 태엽을 맞추어 만든 기계를 가지고, '말하는 장난감' 연구에 정신(精神)이 팔렸읍니다. 건넌방에서는 조수 와드슨이 철사로 선생님의 기계와 연락된 다른 기계를 조사(調査)하고 있었읍니다.

그 때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서 '부웅' 하는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 왔읍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읍니다. 그리고, 곧 와드슨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읍니다.

"여보게, 지금 무얼 하고 있었나? 그 기계를 건드리지 말아요."

선생님의 손은 부르르 떨렸읍니다.

'말하는 장난감'은 마침내 철사를 통하여 가냘프나마 소리를 낸 것이었읍니다.

"성공(成功)할 날도 멀지 않다!"

선생님의 희망(希望)은 불타올랐읍니다. 이

리하여, 최후(最後)의 피나는 노력(努力)이 다시 계속(繼續) 되었읍니다.

'말하는 장난감'이 완성되던 날——그 실험 때이었읍니다.

선생님은 기계 앞에 다가섰읍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계를 향(向)해서 말을 합니다.

"와드슨, 이리 좀 와 주시오."

건넌방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던 와드슨은 깜짝 놀라서 기계를 떨어뜨렸읍니다.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分明)히

사람의 목소리였읍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철사를 통해서 들려 온 것입니다.

와드슨은 곧 선생님 방으로 뛰어갔읍니다.

"들렸읍니다, 들렸읍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읍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못이겨서 서로 껴안고 울었읍니다.

이것은 서기 1878 년 3월 16일이었읍니다. 이 '말하는 장난감'은 말할 것도 없이 전화(電話)입니다. 이 전화를 발명한 선생님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었고, 이 발명은 그가 바로 서른 살 때이었읍니다.

QUESTIONS

알렉산더 그라함 벨은 어데서 소년 시대를 보냈읍니까?
벨은 어렸을 때에 무엇을 좋아하였읍니까?
벨이 무엇을 해서 성가실 지경이었어요?
벨은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하여 벨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벨은 누구를 따라 언제 어데로 이사를 하였읍니까?
캐나다에서 벨은 어데 취직하였어요?
벨은 누구의 교육을 맡아보게 되었읍니까?
벨은 보스턴 맹아학교의 초청을 어떻게 받게되었읍니까?
전신은 무엇을 그어서 통신을 합니까?

벨은 이층에 방을 얻어 가지고 무슨 실험을 시작하였어요?
왜 벨을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읍니까?
와싱턴에서 벨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헨리 박사는 왜 벨을 꾸짖었을까요?
헨리 박사의 말을 듣고 벨은 무슨 결심을 했읍니까?

벨이 병원에서 무엇을 얻어 왔읍니까?
벨은 무엇을 가지고 진동시켜 보았읍니까?
벨은 무엇으로 만든 기계로 연구를 계속했읍니까?
벨이 전화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이층에 방을 얻은후 몇해나 걸려서 전화를 발명했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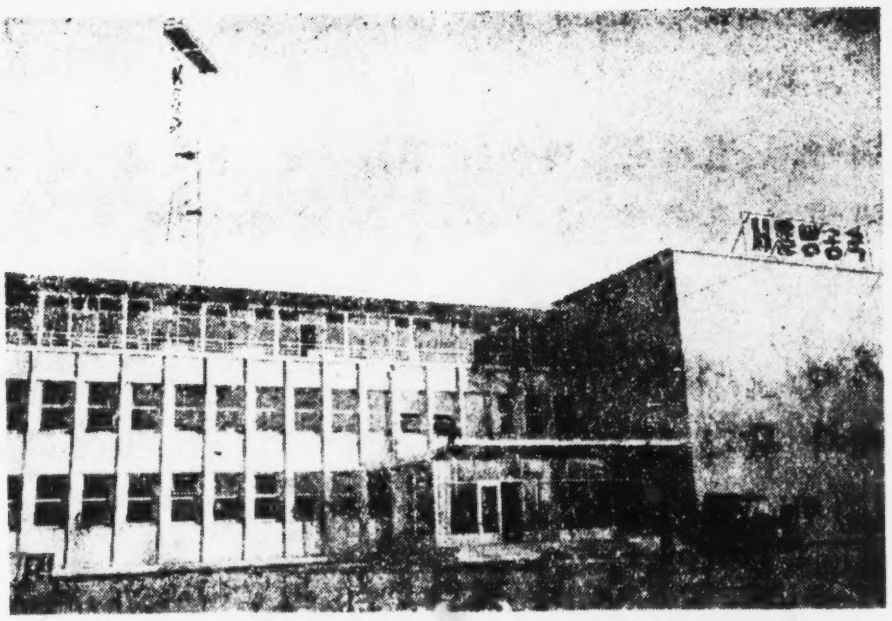
32

VOCABULARY

맹아		the blind and the dumb
서기		Western Chronology
장난감		toy
성미	性味	character, disposition
성가시다		to be troublesome, bothersome
모형		model
의문	疑問	question
입술		lip
궁리하다		to ponder
풀무		blower
원낙		by nature, originally
진동		vibration
문득		suddenly
금		line
비웃다		to sneer at
심지어	甚之於	what is more
꾸짖다		to blame
골몰하다		to be absorbed (in work)
입김		steam of breath
야단하다		to fuss about
어느 덧		before one knows it
우거지다		to grow thick
시계 태엽		watch spring
가냘프다		to be feeble, thin, slender
다가서다		to come closer (and stand)

33

Unit 4



방송국(放送局)을 찾아서

방송국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하시던 아저씨를 영희와 같이 찾아간 것은 3월 8일 오후(午後) 3 시이었다.

아저씨를 찾으니 반가이 맞아 주시고, 이 곳 저 곳 데리고 다니시며 자세히 설명(說明)하여 주셨다. 우리는 중요(重要)한 대목을 수첩에 적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편 집 실

편집실에서는 무선 전신(無線電信)으로 들어오는 외국(外國)의 뉴우스를 리시이버로 들으면서 타이프를 찍고 있었다.

이 외국 뉴우스는, 그 중(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서 어나운서에게 보내어, 전국(全國)에 새 소식(消息)으로 전(傳)해 준다고 하며, 나라 안 뉴우스와 함께 방송(放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다고 한다.

옆 방(房)에서는, 어나운서 아저씨들이 원고를 들고 읽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라디오에서 듣는 뉴우스 방송은, 이렇게 연습(練習)한 결과(結果) 이야기하듯 술술 거침없이 나오는가 보다.

그 옆에서 분주하게 무엇을 쓰고 있는 분은 프로그램을 짜는 중이라 한다. 방송이란 워낙 어느 한 사람만 위(爲)한 것이 아니고, 국민(國民)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짜기는 가장 어렵고, 또 방송의 생명(生命)이 된다는 것이었다. 먼저,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미리 조사(調査)한 다음에, 시간(時間)과 종류(種類)와 방송할 사람들을 정(定)하는데, 한 달 전(前)에 대강 계획을 세우고, 나흘 전에는 완전(完全)한 프로그램을 등사하여 돌린다 한다.

방 송 실

방송실(放送室)에 들어갔다. 조용한 방! 숨소리까지 빨아들일 것처럼 고요한 방이었다. 벽(壁)이란 벽은 모두 헝겊으로 싸여 있고, 주름잡힌 휘장이 사방(四方)에 드리워져 있다. 드나드는 문도 두껍게 이중(二重)으로 되어 있고, 유리창도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방바닥에도 양탄자가 깔려 있다. 방송에 필요(必要)한 소리 이외(以外)의 다른 잡음(雜音)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방

송실은 소리의 반사(反射)를 막는 특수(特殊)한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책상 위에는 마이크가 하나 놓여 있다.

"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새로운 뉴우스가 우리 귀에 들려 오는구나!"

생각하니 퍽 반가왔다.

제일(第一) 방송실에 들어갔다. 훨씬 넓게 꾸며져 있고, 그 안에는 마이크가 한가운데

큰 저울같이 달려 있었다. 여기가 음악(音樂)과 연극(演劇)을 방송하는 곳이라 한다.

그러고 보니, 피아노와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物件)들이 많이 놓여 있다. 대문(大門) 여는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비 오는 소리는 모두 이런 것으로 꾸며서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꾸며 내는 소리를 음향 효과(效果)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문(門)이 펄쩍 열리자,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들어왔다. 아이들이 더 많았다.

"자, 나가자. 이제부터 어린이 시간에 할 방송극(放送劇) 녹음을 한단다. 우리, 부조정실(副調整室)에 들어가서 듣기로 하자."

고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녹음이라니요?"

나는 아저씨에게 여쭈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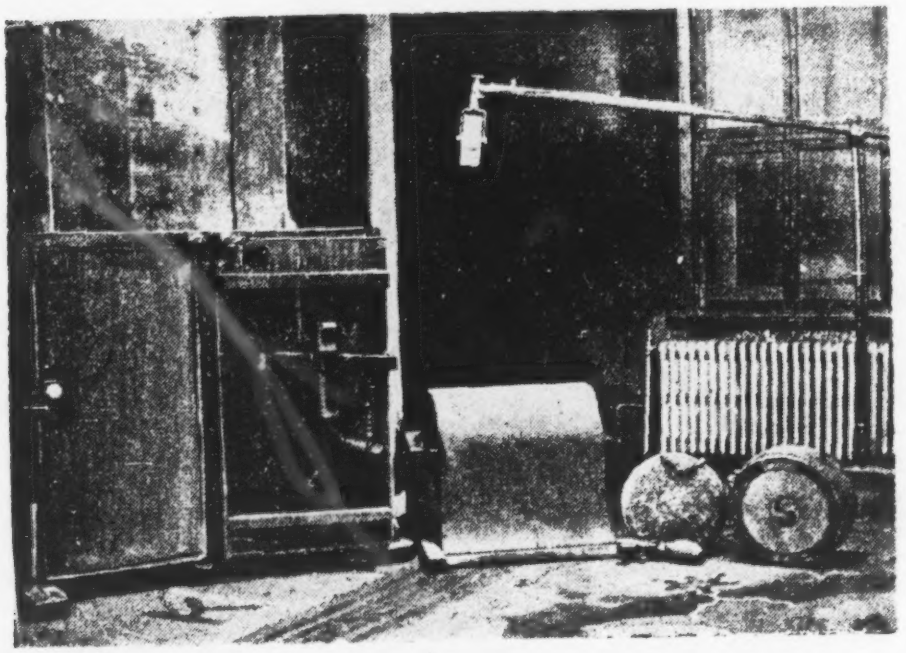
"방송할 것을 미리 기계(機械)에 녹음해 두었다가, 축음기(蓄音機) 레코오드처럼 필요한 때에 소리를 내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다. 야구(野球) 시합(試合)이나 기념 행사(行事)의 실황을 나중에 보내 주는 것은 모두 녹음 방송으로 하고, 또 밤이나 새벽에 방송하게 되는 것도 미리 녹음을 하게 된단다."

우리들은 부조정실로 들어갔다. 방송은 곧 시작되었다. 이 쪽에서 아저씨 한 분이 유리창을 통(通)하여 지휘(指揮)를 하고 있었다. 후(後)에 들으니, 이 분은 프로듀우서라고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지휘를 맡아 본

다고 한다.

방송극은, 어린이들이 힘을 합하여 불쌍한 동무를 구해 주는 이야기이었다. 연극처럼 유다른 옷차림도 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서 서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퍽 이상하게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와 비바람이 윙윙 몰아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장난감 비슷한 대문이 삐걱 열리고, 문고리가 철꺽하는 것이 정말 비슷하였다. 바람 소리는 둥그렇게 물레방아 모양으로 만들어 놓



40

은 것에다가 두꺼운 형겊을 씌워 놓은 기계를 빙글빙글 돌려서 내고 있었다.

웬만한 소리 흉내는 거의 모두 이렇게 꾸며서 내고 있다 한다.

부조정실에서는, 방송하는 소리를 부조정반이란 기계에 넣어서, 소리의 크고 작음을 알맞게 맞춘다고 한다. 잘못하면 안 들리는 수도 있다고 하니, 조정(調整)하는 분의 책임(責任)도 역시 중요하구나 생각했다.

녹 음 기

부조정실을 나와, 조정반 녹음기 등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은 조정실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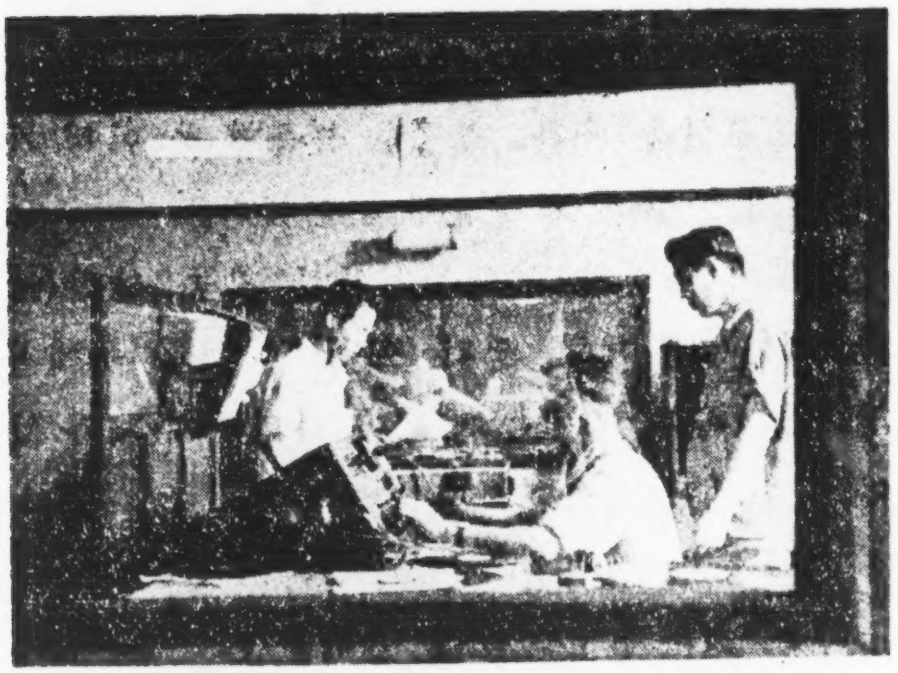
조정실 조정반 옆에는, 마치 활동 사진(活動寫眞) 필름처럼 생긴 테이프가 한 쪽에서 감기면, 다른 쪽에는 연달아 풀리는 기계가 있다. 이것이 녹음기라고 한다.

"저 얇은 테이프가 돌아가는 동안에, 방송하는 소리가 그 속에 입혀진다. 그 전에

는 축음기 레코오드 같은 판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단(簡單)히 녹음을 할 수 있게 됐단다. 너희들, 이 방송이 끝나거든 녹음을 시켜 줄까?"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물론 우리들은 "예, 예." 하며 기뻐하였다.

견학(見學)이 끝난 다음, 우리들은 다시 방송실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였다. 영희는 애국가(愛國歌)를 부르고, 나는 아저씨가 적어



42

주신 것을 읽었다.

녹음이 끝나자, 우리들은 조정실에서 곧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영희의 애국가—— 노래 잘 부르는 영희의 고운 목소리가 조그만 기계 속에서 울려나오는 게 참 신기하였다. 그 다음이 바로 내 목소리—— 이것은 더 재미있고 신기하게 들렸다.

"이것으로 어린이 시험(試驗) 방송을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노래를 부르신 분은, 김영희 아가씨이었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서울 중앙 방송국 제일 방송입니다. 에이치, 엘, 케이, 에이."

분명(分明)히 내가 읽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러나, 영희는 내 목소리 그대로라고 한다. 아저씨도 웃으시면서,

"녹음을 해서 듣는 게 정말 네 목소리다."

하시었다. 어나운서들은 이렇게 녹음을 들으

면서, 자기(自己)의 말하는 버릇을 알고, 또 그것을 고쳐 간다는 것이었다.

조 정 실

우리들은 조정실에서 녹음을 들은 다음, 거기에 있는 큰 기계들을 구경하였다. 크고 작은 진공관(眞空管)의 파란 불들이 비치고 있었다.

이 방에서는, 방송실 옆에 있는 부조정실의 조정반을 통해 나온 방송을, 다시 이 곳 조정반을 통하게 해서 더욱 고르게 조정하여, 유선(有線)으로 연희 송신소(送信所)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연희 송신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100 *kw* 송신기(送信機)로 방송을 크고 강(強)하게 하여 안테나로 보내서, 전파(電波)를 전국(全國) 방방곡곡에 퍼뜨린다는 것이었다.

QUESTIONS

1. 편집실에서는 무엇을 타이프를 찍고 있었어요?
2. 어떠한 소식을 뉴우스로 전해 줍니까?
3. 어나운서들은 왜 원고를 읽는 연습을 합니까?
4. 프로그램을 짜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5. 완전한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나오게됩니까?

6. 방송실의 벽은 어떻게 만들었읍니까?
7. 방송실의 문과 창을 특별히 만들었읍니까?
8. 第一 방송실에서는 무엇을 방송하는 곳입니까?
9. 음향효과를 내기 위하여 무엇이 있읍니까?
10. 예를 들면 무슨 푸로그램을 녹음방송으로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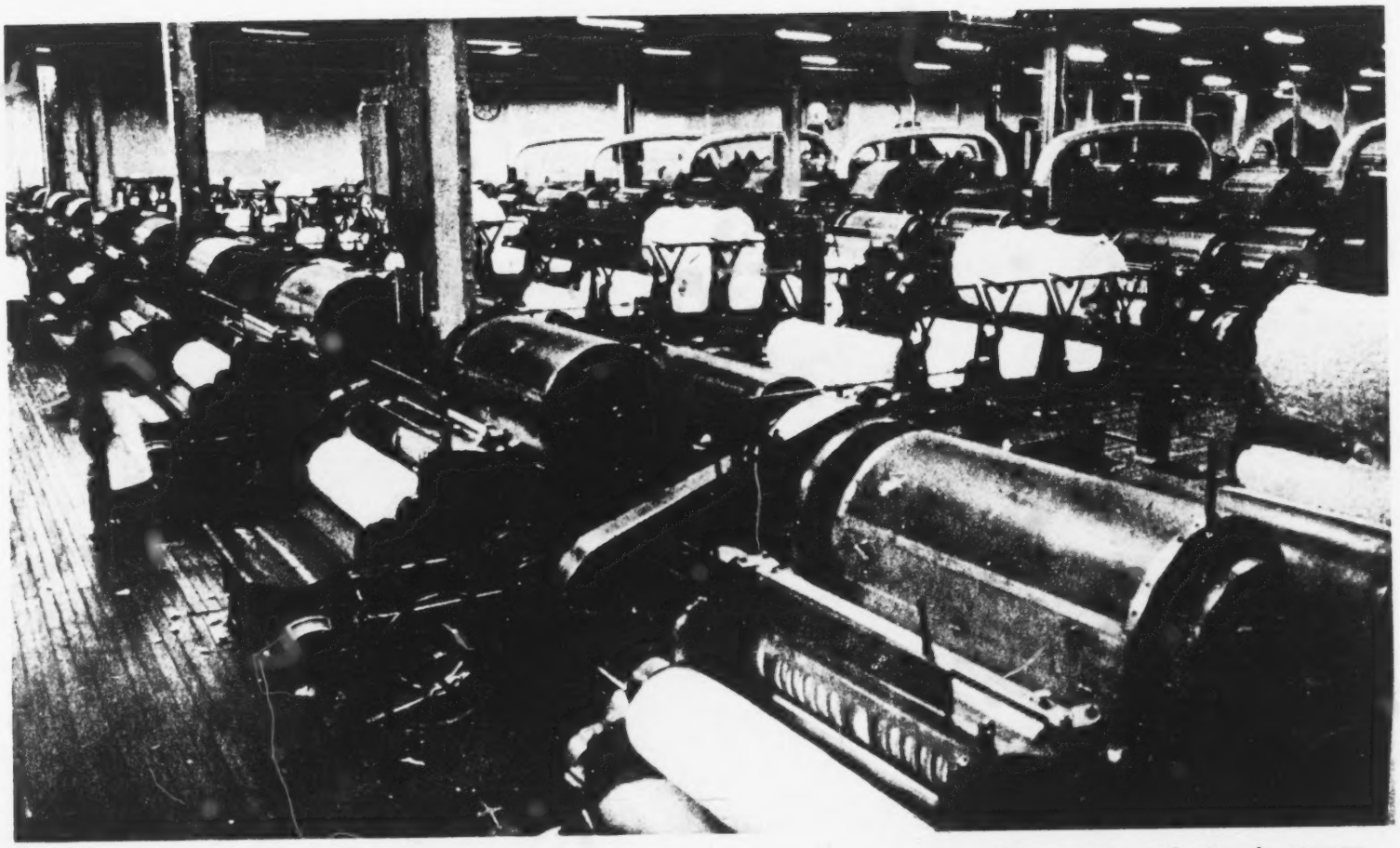
11. 부조정실은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12. 프로듀우서는 무슨일을 맡아 보고있읍니까?
13. 조정실에는 무슨 기계가 있었읍니까?
14. 녹음을 잘 하는데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15. 에이치, 엘, 케이, 에이는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16. 방송국하고 극장에서 하는 연극은 어떻게 다릅니까?
17. 방송국에서 연희 송신소로는 방송을 무선으로 보냅니까?
18. 연희 송신소에는 얼마나 강한 송신기가 있어요?
19. 연희 송신소에서 보내는 전파는 어데까지 퍼뜨립니까?
20. 서울 방송국은 관영인데 미국에도 관영방송국이 있읍니까?

45

VOCABULARY

대목		most important occasion
편집실		editorial department
거침없이		smoothly
등사		mimeographing
주름		pleats, wrinkles
휘장		curtain
드리우다		to hang down
양탄자		rug-cloth
잡음	雜音	noise
반사	反射	reflection
꾸미다		to finish up, fix up
음향효과		acoustic conditions
방송극	放送劇	radio drama
조정	調整	adjustment
녹음	錄音	sound recording
기념	紀念	commemoration
행사	行事	event, function
유다르다	類	to be uncommon
문고리		door handle
물레방아		water mill
꾸미다		to put together, fix up
진공관		vacuum tube
유선	有線	having wires, wired
송신	送信	transmission
전파	電波	radio wave



The textile industry is responsible for 25 percent of all goods manufactured in the ROK.

A hoist lowers a railroad tanker from a freighter at Pusan, Korea's largest port.

Unit 5

목 화
木 花

따스한 가을볕에 하늘거리는 하얀 꽃송이! 한두 송이가 아니고 흰 눈이라도 내린 듯이 눈이 부신 하얀 꽃밭! 알고 보면 그건 꽃밭이 아니라 木花밭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 흰 木花 송이를 꽃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꽃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 벌어진 것이다.

그 열매의 씨를 빼면 포근하고 따뜻한 솜이 되고, 그것에서 실을 뽑아 짜면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必要한 무명 옷감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대견한 꽃송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고마운 植物(식물) 木花는, 약 六百年(육백년) 前까지는 우리 나라에는 없었다.

本來(본래) 南쪽 나라에서 태어난 이 木花가 우리 나라에서 재배되어 솜으로 옷감으로 쓰이게 된 데까지에는, 木花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어른의 수고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고려 말기에 어떤 선비가 있었다. 그는 어

려서부터 성품이 곧을뿐더러, 효성이 지극하고 문장이 뛰어난, 공민왕 때의 사람이었다. 선비는 國命(국명)으로 멀리 中國 대륙 元나라에 갔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三年이란 긴 세월을 머나먼 他國(타국) 시골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우기, 그가 지낸 곳은 우리 나라보다 기후가 매우 덥고 病(병)도 또한 많았다. 그래서, 病에 걸려 자리에 누웠던 일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멀리 떠나 온 고국을 그리며, 혼자 밭길을 거닐다가 하얀 꽃밭을 보게 되었다.

"아, 곱기도 해라! 저게 무슨 꽃들일까? 무슨 꽃을 밭에 저렇게 많이 심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가까이 가 보니, 그것은 꽃이 아니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木花 송이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에게서 그 木花의 쓰임을 알았을 때, 그는 문득 추운 地方에서 사는 고국 사람 생각이 났다.

"그렇다! 꼭 이 木花씨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자. 가서 이것을 全國(전국)에 퍼뜨려 솜을 만들고 옷을 지어 입게 하자."

그 當時(당시) 우리 나라에는, 오늘날과 같이 털로 짠 옷감은커녕, 삼베가 아니면 비단밖에 없었다. 삼베로는 추위를 막기 어렵고, 비단은 비싸서 일반 國民에게 고루 미칠 수 없었다.

그는 이 木花씨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다.

"外國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나 이 木花를

보고는 신기하게 여기고 탐을 내지요. 그래서 이 종자를 自己 나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건 국법으로 못 하게 하고 있읍니다. 아무도 나라 밖으로 이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 속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들키어, 벌을 받은 일도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그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이 종자를 고국 땅에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별 신통한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루는 방에 앉아 글씨를 쓰다가, 문득 붓두껍을 집어 들고 혼자 기뻐하였다.

"옳다, 되었다. 여기 넣어 가지고 가자."

마침내, 그는 그리운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가 고국으로 떠나려 할 때,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그의 짐이며 옷까지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다. 木花 종자를 숨겨 가지고 가지나 않나 하여서였다. 그러나,

붓두껍 속에 든 木花씨를 알 리가 없어, 그는 무사히 고국에 돌아왔던 것이다.

그는 고국에 돌아오자, 곧 짐을 풀고 붓두껍에서 木花 씨앗을 꺼냈다. 겨우 세 톨! 얼마나 귀중한 씨앗이었을까?

그는 이것을 고향인 경상 남도 산청군에 정성스럽게 심었다. 그러나, 싹이 튼 것은 겨우 하나뿐이었다. 이것을 들며 나며 아껴 가꾼 보람이 있어, 싹은 잘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마침내, 열매가 익어 하얀 木花 송이가 탐스럽게 피었다.

처음에 단 하나의 싹이 자랄 때에는, 벌레라도 먹으면 어쩌나, 비바람에 줄기가 꺾이면 어쩌나 하고, 바람 앞에 등불을 든 사람처럼 염려가 되었으나, 이제 제법 많은 씨앗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이듬해, 그 씨를 또 심었더니, 이번엔 적지 않은 꽃밭을 이루었다. 이렇게 三年 동안 받은 木花씨는 이웃에서 이웃으로, 마침내는 나라 안에 쫙 퍼졌고, 사람마다 다투어 이 솜꽃이 여는 신기한 植物을 심으려 했다.

木花 송이는 그것이 그냥 솜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이 실사리 실이 되어 옷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 木花 송이에서 씨를 빼야 했으나, 그 씨는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으로 일일이 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손쉽게 이 씨를 뺄 수 있을까 하고 연구에 연

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쉽게 씨를 뺄 수 있는 간단하고도 便利(편리)한 기계와 또 실을 뽑는 기계도 만들어 내었다.

그는 물론, 그의 친척들까지도 그의 뜻을 받들어 그 기계 연구에 노력하였는데, 그의 손자 문래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실 뽑는 기계를 만들어 내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실을 뽑는 기계를 물레라고 하는데, 이는 문래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木花 재배국이 되어, 일상 衣服(의복)에 무한히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면포를 수출하여 外國의 화폐를 벌어들이게 되었으니, 그가 나라에 끼친 공적은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나이 일흔에 世上을 떠났으나,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철을 따라 피는 부드러운 흰 木花 송이와 함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살아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선비가 바로 문 익점 先生이다.

QUESTIONS

1. 木花는 어떻게 해서 무명 옷 감이 됩니까?
2. 木花는 몇年前까지 한국에 없었읍니까?
3. 本來 木花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4. 문익점先生은 어느 때의 사람이었어요?
5. 문先生은 어떠한 분이었읍니까?

6. 문先生은 國命으로 어데 갔었읍니까?
7. 三年동안 문先生은 어데서 보내였읍니까?
8. 문先生은 언제 木花 송이를 처음으로 보았읍니까?
9. 누구한테서 木花의 쓰임을 알았어요?
10. 그때 문先生은 왜 고국사람생각이 났을까요?

11. 그때 문先生은 무슨 결심을 했읍니까?
12. 그 당시 한국에는 옷감으로는 무엇이 있었어요?
13. 元나라에서는 국법으로 외국사람한테 무엇을 못 하게했어요?
14. 元나라 관리들이 문선생을 언제 어떻게 조사했어요?
15. 문先生은 어떻게 木花씨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16. 문先生은 고향에 와서 몇톨이나 木花 씨앗을 심었어요?
17. 싹이 튼 것이 몇이나 되었어요?
18. 문先生은 무슨 기계를 만들어 내었읍니까?
19. 물레는 무슨 기계며 어데서 온 이름입니까?
20. 木花재배국이 어떻게 外國의 화폐를 벌어들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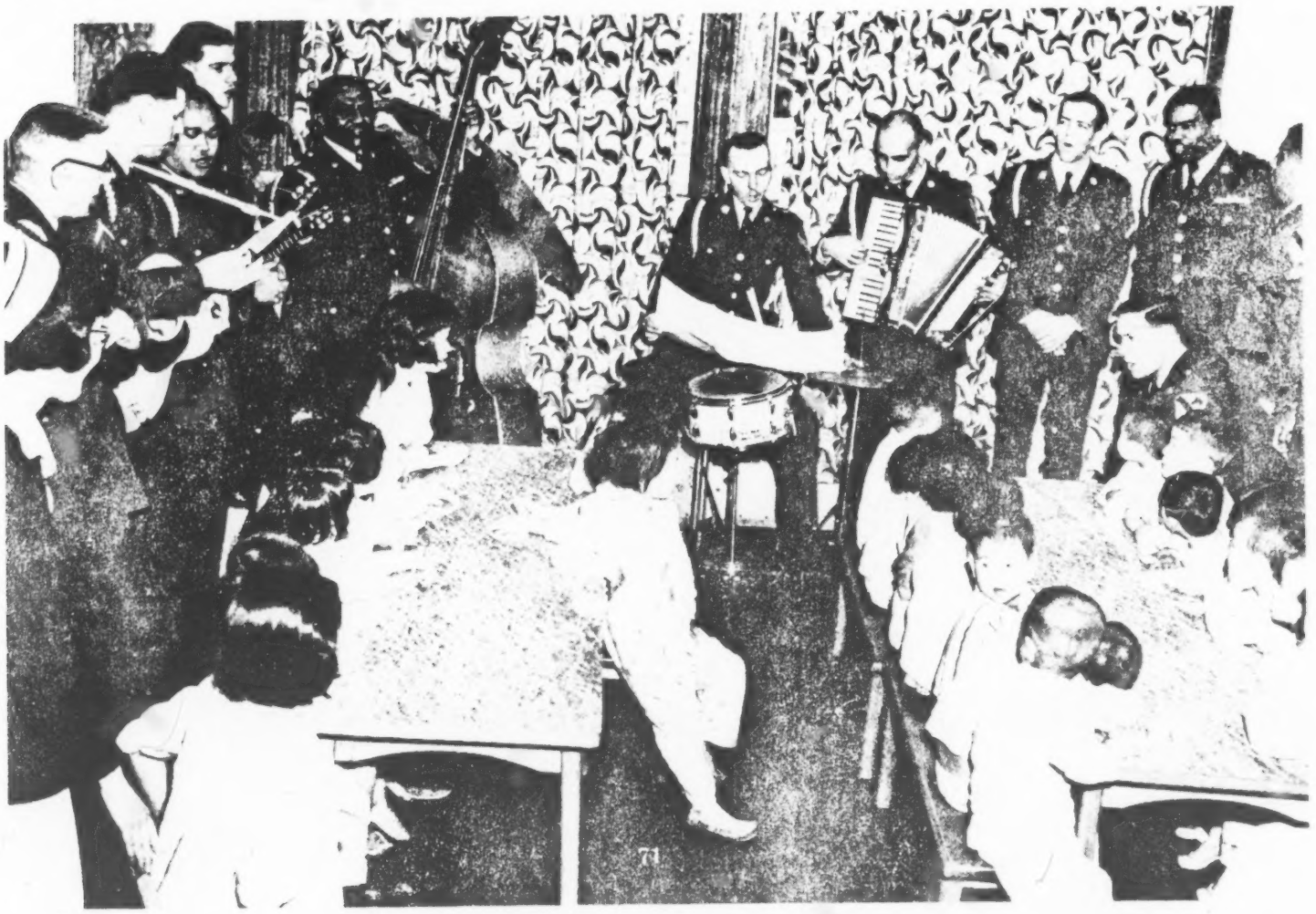
55

VOCABULARY

목화	木花	cotton plant
하늘거리다		to be dangling
꽃송이		blossom
눈이부시다		one's eyes are dazzled
열매		fruit
포근하다		to be soft
뽑다		to pull out
짜다		to weave
무명		cotton
대견하다		to be helpful
재배	栽培	cultivation
수고		efforts, taking troubles
선비		scholar
성품	性品	nature, disposition
효성		filial piety
지극하다		to be extreme
그리다		to be lonely for
커녕		to say nothing of
삼베		hemp cloth
붓두껍		brush cap
살살이		everywhere
씨앗		seeds
보람이있다		to be worthwhile, useful
면포	綿布	cotton cloth
화폐		money

56

Members of a Division's orchestra entertain the children in one of the orphanages near their area.



57

Unit 6

청 진 기

의사(醫師)가 병(病)을 진찰할 때에 제일(第一) 먼저 꺼내는 것은 유리로 만든 체온계(體温計)와 고무줄이 두 갈래로 달린 청진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의사에게 없지 못할 중요(重要)한 연장입니다. 몸의 열(熱)이 높은가를 알려면 체온계를 써야 하고, 내장의 고장을 알아 내려면 청진기를 가슴이나 등에 대고 들어 봅니다.

이 중에서 청진기가 발명된 것은 서기(西紀) 1814 년이었읍니다. 서기 1814 년이라고 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戰爭)에 패하여 엘바 섬에 귀양가던 해입니다. 전쟁이 끝난 바로 그 해이었기 때문에, 병들고 부상당

한 사람들이 병원마다 가득 차 있었읍니다.

이 때, 프랑스의 서울 파리에 있는 네케 병원에 르네 레넥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읍니다. 불쌍한 병자(病者)들을 위하여 친절히 돌보아 주고 있었읍니다.

어느 날, 하루의 바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읍니다. 넓은 마당에서 어린아이들이 시이소오를 타고 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좀 이상하여, 레넥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읍니다. 시이소오를 타지는 않고, 한 아이가 한 쪽 널빤지에 귀를 대고 있는데, 다른 아이는 저 쪽 끝에서 못을 가지고 긁고 있는 것이었읍니다.

"별 장난을 다 한다."

생각하며 보고 있으려니까, 아이들은 번갈아 널빤지에 귀를 대고 있다가는,

"야아, 들린다! 아주 크게 들리는데."

하고, 야단들입니다.

"얘들아, 무엇이 그렇게 잘 들리니?"

레넥은 한 아이에게 물어 보았읍니다.

"들어 보셔요, 아저씨."

레넥은 아이들과 같이 널빤지 한 끝에 귀를 대어 보았읍니다. 그냥 들을 때는 들릴까 말까 하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읍니다.

"아저씨, 잘 들리지요?"

아이들은 그것 보라는 듯이 레넥을 보고 웃었읍니다.

소리는 공기(空氣)뿐만 아니라, 널빤지에도 잘 통(通)합니다. 그리고, 공기보다는 널빤지를 통하는 편이 더 잘 들립니다. 레넥은 아이들 장난으로 말미암아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레넥은 이 원리(原理)를 의술에 응용해 보려고 생각하였읍니다.

몸이 불편(不便)할 때는, 내장의 기관(器官)에 변화가 생겨서 소리에 나타납니다. 이 소리의 변화를 잘 분간해서 들으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레넥은 곧 속이 텅 빈 나무를 병자의 가슴에 대어

보았읍니다. 과연 내장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왔읍니다. 그리고 병의 종류(種類)에 따라, 그 소리도 다르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지금 쓰이는 청진기의 시초(始初)이었읍니다. 레넥은 이 나무 청진기를 가지고, 어떤 병에는 이런 소리가 나고, 어떤 병에는 저런 소리가 나는 것을 분간하는 연구를 하였읍니다. 이것이 의학(醫學)에 얼마나 큰 공(功)을 세웠는가는, 지금 의사들이 모두 청진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읍니다.

지금은 물론, 레넥이 발명한 나무 청진기는 쓰지 않읍니다. 상아로 만든 통에 고무줄 두 개를 끼워서, 그 끝에 귀 속에 넣는 청취기를 달았읍니다. 이것도 결국(結局)은 레넥의 청진기를 개량(改良)한 것입니다.

QUESTIONS

1. 진찰할 때에 의사가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체온계를 쓰면 무엇을 알 수 있읍니까?
3. 청진기를 의사가 어데 대고 듣습니까?
4. 무엇을 알아 내려고 의사가 청진기를 씁니까?
5. 서기 1814 년은 나폴레온이 무엇을 하던 해입니까?

6. 서기 1814 년에는 왜 병원마다 병자로 만원이었읍니까?
7. 레넥은 네케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8.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레넥은 왜 걸음을 멈추었읍니까?
9. 레넥이 아이들과 같이 무엇을 들어 보았어요?
10. 그때까지는 소리가 무엇을 통해서만 들린다고 생각했읍니까?

11. 공기하고 널빤지는 어느것을 통하는 편이 더 잘 들렸읍니까?
12. 레넥은 무슨 원리를 의술에 응용해 보고 싶어했읍니까?
13. 몸이 퍽 不便하면 내장에 무엇이 생깁니까?
14. 병의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15. 레넥이 병원에서 나무를 누구한테 대어보았읍니까?

16. 現在는 어느나라에서 레넥이 발명한 나무 청진기를 씁니까?
17. 나무청진기 대신에 요새는 무엇으로 만든 것을 씁니까?
18. 청진기에는 무엇으로 만든 줄을 끼워서 씁니까?
19. 청취기라면 어느 부분을 말 합니까?
20. 레넥은 의학에 얼마나 공을 세웠읍니까?

62

VOCABULARY

진찰	診察	medical examination
체온계	体溫計	clinical thermometer
갈래		branch
청진기	聽診器	stethoscope
내장		internal organs
등		the back (of a body)
패하다	敗	to get defeated
귀양가다		to go into exile
가득차다		to be filled up
불쌍하다		to be pitiable
돌보다		to take care of
문득		suddenly
널빤지		board
못		nail
긁다		to scratch
번갈아		by turns
말미암아		on account of
원리	原理	principle
의술	医術	medical arts
응용		application
기관		windpipe
분간하다		to distinguish
텅비다		to be empty
공을세우다		to render distinguished service

63

Unit 7

바닷속의 秘密

崔 基 哲

1. 人魚는 정말 있는가

비바람이 사나운 날, 바닷가에 서서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번은 疑問을 가졌을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저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일까?

바닷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옛날 사람들 중에는, 龍이 바닷속에 있어서, 성이 나면 파도를 일게 하고, 성이 풀리면 파도를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있었읍니다. 그 '용'이라고 부르는 動物은 굉장히 큰 것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支配하는, 바다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무도 그 용을 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속에 神이 있어서, 그것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는 이런 생각

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섬에서 바다를 상대로 하여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黃海나 南海에 있는 조그만 섬들을 찾아가면, 숲이 우거진 곳에 당집을 짓고서 바다의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 섬사람들이 모이서, 盛大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섬에 불행한 일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서 신의 비위를 맞추고, 섬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당집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보았다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이 곧 인어입니다. 인어가 어떻게 생겼더냐고 물어 보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對答합니다. 얼굴은 여자인데, 머리는 풀어서 늘어뜨리고, 몸은 물고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인어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배를 뒤집고, 사람을 물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인어를 파도가 센 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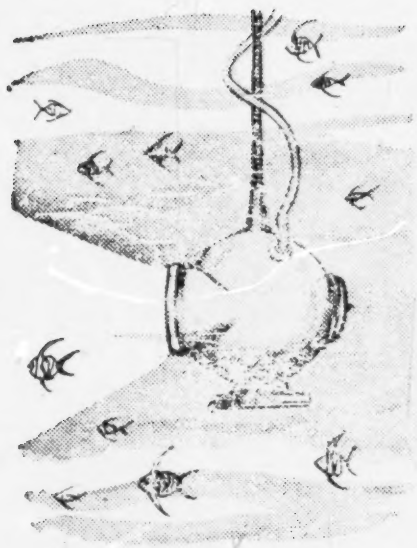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65

2. 바닷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바닷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이 문제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품고 있는 큰 의문의 하나입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 속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그러나, 물이 맑은 곳이라도 20 m 이상이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통 밑에 유리를 깔면, 그것을 통해서 좀더 잘 볼 수 있으나, 그것도 30 m 이상을 볼 수 없읍니다. 바닷속을 탐험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드디어 잠수복(潛水服)을 만들어 내게 되었읍니다. 잠수부는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전복, 소라, 산호와 같이 사람에게 有用한 것들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最近에는 잠수복이 대단히 發達해서, 등에 簡單한 산소 탱크를 메고 물 속에 들어가서 두서너 시간 구경하다가 올라올 수 있는 器具까지 발명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얕은 바다에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가 되면, 이런 기구들은 쓰이지 못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물의 압력이 강해져



비이브의 잠수구

서, 이런 기구로는 도저히 견디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물의 壓力에 짜부라지지 않는 특별한 裝置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934년에 미국 사람 윌리엄 비이브가, 자기가 考案한 잠수구(潛水球)를 타고 깊이 923 m 나 되는 물 속에 들어갔던 일이 있읍니다.

비이브는 그때에 잠수구에서 유리 밖에 나타나는 光景을 일일이 기록하고, 또 그것을 방송하였는데, 미국의 모든 放送局은 音樂도 오락 시간도 모두 中止하고, 비이브의 報告를 중계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 뒤, 많은 學者들이 깊은 바다를 탐험했읍니다. 그리하여, 1960년에는 드디어 미국 海軍이 만든 잠수정이 메리애나 해구(海溝)에서 11,000 m 의 깊이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깊은 바다를 探査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이 잠수정에 탔던 재크 피카 敎授는 깊이가 11,000 m 나 되는 바다 밑에서 사는 은빛 물

67

고기와 鮮明하고 빨간빛을 띤 새우 무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3. 바다의 비밀

깊은 바다에는 아직도 사람이 못 가 본 곳이 많지만, 그런 곳의 生物들을 채집할 수는 있읍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그곳의 물을 떠서, 거기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읍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물은 11,000 m 나 되는 깊은 곳에도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읍니다. 그러나, 표면에서 깊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생물들은 200 m 보다 얕은 곳에 있고, 그보다도 깊은 곳이 되면 특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날마다 보고 있는 바닷말[海藻]이나 생선 따위는 모두 얕은 바다에서 産出되는 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거의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깊은 바다의 생물

깊은 바다에는 우리가 꿈에도 보지 못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한 번은 상상을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실지로 깊은 바다에서 잡아 올린 진기한 물고기를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가 보지 못한 딴 세계에서 사는 그들의 生活狀態가 상상되어서, 신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란 어떠한 세계이겠읍니까? 깊은 바다는 캄캄한 곳입니다. 태양의 光線은 바닷물에 흡수되므로, 깊이 500 m가 되면 거의 없어지고, 1000 m를 넘게 되면 完全히 흡수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런 깊이가 되면, 영원히 태양의 광선이 들어갈 수 없는 暗黑의 세계가 됩니다. 온도는 1년 내내 거의 變化가 없어서, 늘 섭씨 1~2도라는 낮은 온도가 계속됩니다.

물의 압력은 대단히 커서, 깊이 1000 m가 되면 1 cm^2가 받는 물의 압력이 100 kg이나 됩니다.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는 곳입니다. 태곳적부터 영원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항상 커다란 압력을 받고, 변함이 없는 온도를 유지하며, 영원히 죽음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암흑의 세계가 바로 깊은 바다인 것입니다.

69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얕은 물에서 사는 것들에 비하면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發光器를 가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광선을 發射해서 먹이를 얻고, 같은 종류의 동물을 찾아 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눈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연 退化해서 소경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특히 발달하여서 머리의 반이나 되는 커다란 눈을 가졌거나, 긴 자루 끝에 눈이 붙어 있읍니다.

세째는, 일반적으로 感覺性의 수염이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 수염이 길고, 끝에 발광기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째는, 消化器가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깊은 바다에는 햇빛이 미치지 못하여 植物이 자라지 못하므로, 이런 곳에 사는 동물들은, 위에서 항상 비가 오듯이 내려오는 다른 동물의 시체를 먹거나, 그곳에 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수밖에 없읍니다. 다른 동물의 시체를 먹는 것들은 입이나 이나 胃가 특수하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은 먹이를 얻는 機會가 적어서, 몹시 탐식

(貪食)을 하며, 자기보다 큰 동물도 마구 잡아먹는 일이 예사입니다. 그 결과, 입이나 이가 놀랄 만큼 클 뿐 아니라, 위나 배의 근육도 대단히 발달하였읍니다.

다섯째는, 몸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뼈가 연하고 살이 단단하지 못하여, 흐느적흐느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뼈가 단단하지 못한 것은 얕은 바다에 비해서 石灰分이 적은 것이 그 원인의 하나입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산뜻한 색채를 갖춘 것이 없고, 회색이나 흑색 등으로 된 單純한 몸빛깔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주

윌리엄 비이브(Beebe, William) : 미국 사람. 熱帶海洋學者.

QUESTIONS

1. 옛날에는 무엇이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2. 지금도 한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3. 어느 지방에서 바다의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까?
4. 그 지방사람들이 언제 당집에 가서 빕니까?
5. 인어가 어떻게 생겼다는 사람이 있읍니까?

6. 인어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7. 통 밑에 유리를 깔면 얼마나 깊이 바다속을 볼수있읍니까?
8. 잠수부는 무엇을 채취할 수 있어요?
9. 등에 간단한 산소 탱크를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무슨 장치가 필요합니까?

11. 1934년에 비이브가 무엇을 했읍니까?
12. 그때 방송국은 무엇을 방송했읍니까?
13. 1960년에 해군잠수정은 어데까지 탐험했어요?
14. 피카 교수는 그때 무엇을 보았읍니까?
15. 생물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살수 있읍니까?

16. 태양의 광선은 깊이 몇m가 되면 물에 흡수당합니까?
17. 깊이 1000m가 되면 물의 온도와 압력이 얼마나 됩니까?
18. 깊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는 왜 발광기가 있을까요?
19. 그런 물고기의 눈은 어떻습니까?
20. 감각성의 수염과 소화기는 왜 발달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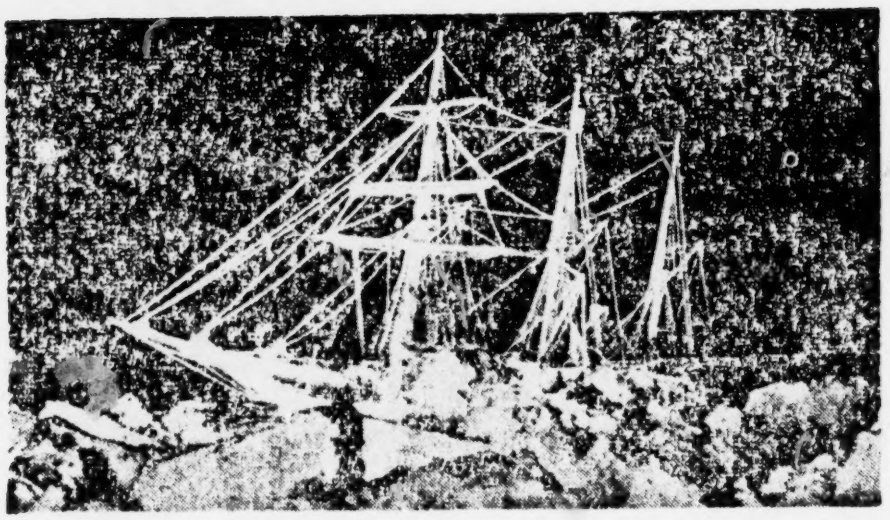
72

VOCABULARY

비밀	秘密	secret
인어	人魚	mermaid
의문	疑問	doubt, question
용	龍	dragon
지배하다	支配	to control
신	神	god
황해	黃海	the Yellow Sea
성대하다	盛大	to be grand
유용하다	有用	to be useful
최근에는	最近	lately
발달하다	發達	to develop
압력	压力	pressure
장치	裝置	apparatus
고안하다	考案	to devise
광경	光景	scene
감각성	感覺性	sensibility
탐사	探查	quiet investigation
교수	敎授	professor
암흑	暗黑	darkness
변화	変化	change
발광기	發光器	radiant (machine)
소화기	消化器	digestive organ
식물	植物	vegetation, plants
석회	石灰	lime
단순	單純	simplicity

Unit 8

극지 탐험



지도(地圖)를 살펴보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서(東西)로 갈라 놓은 남북(南北) 아메리카 대륙(大陸)이 발견(發見)된 지 불과 사백 오십 여 년 만에, 찬란한 문명(文明) 국가(國家)를 수없이 이룩하였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歷史)가 시작된 이래, 세계(世界)는 줄기찬 인류(人類)의 노력(努力)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들 앞에 차차 그 모습을 밝혀 주었

으나, 근래까지 눈과 얼음 속에 고이고이 싸여서, 그 비밀(秘密)을 간직해 오던 남극, 북극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인류 문화(文化)에 이바지하게 되었을까?

이 지구(地球)에서, 아직도 사람이 모르고 있는 곳을 없애자는 욕망과, 이 양극 지방(地方)의 거친 자연(自然)을 극복하고 지구의 돌대 위에 서 보겠다는 희망(希望)을 가진 사람은 전부터 많았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로알드 아문젠이다.

아문젠은 열 다섯 살 때 벌써 극지를 탐험하려고 결심(決心)하였다. 그는 북빙양의 항로를 발견하려고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프랭클린 탐험대의 이야기를 쓴 책을 읽고 감격하였다고 한다.

탐험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몸이 튼튼하여야 하고, 뜻이 굳세어야 한다. 아문젠은 우선

신체(身體)를 단련하는 데 모든 정성을 바쳤다. 위생에 주의(注意)하여 몸조심한 것은 물론(勿論)이요, 스키이를 하여 눈보라치는 산과 들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살을 에는 추운 밤에도 일부러 창문을 열어젖뜨리고 자며, 극지생활의 연습(練習)을 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는 어머니의 권에 못 이기어 의학 공부를 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곧 기선(汽船)에 올라 항해의 실습(實習)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달을 잡는 배를 타고 그리인란드에도 가 보았고, 도이칠란트에 건너가서 지구 물리학을 연구(研究)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모두 극지를 탐험하는 데 필요한 예비 지식(知識)

을 얻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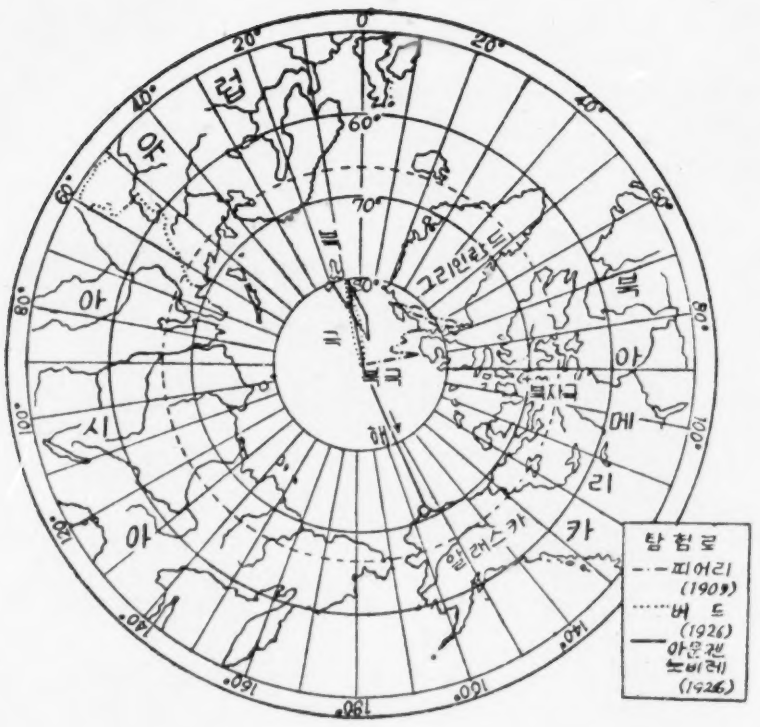
아문젠은 스물 다섯 살 때,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극지 탐험의 첫 발길을 내디디게 되었다. 프랑스의 탐험대가 남극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곧 대원으로 참가하여 실지로 탐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서기 1903 년 서른 두 살 때는, 벌써 북빙양 항로의 탐험 대장이 되어 6 년 동안에 걸쳐, 프랭클린을 비롯한 여러 탐험대가 일찌기 발견하지 못한 항로 개척에 성공(成功)하였다.

동시에, 아문젠은 이 항로 발견의 탐험에서 지구의 자기(磁氣)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여 공로가 컸다.

그러나, 아문젠의 목적(目的)은 어디까지나 북극 탐험에 있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극에다 자기의 첫 발자국을 남기겠다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연구와 준비(準備)를 갖추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기선 프램호로

77



떠나려는 무렵에, 피어리가 북극 탐험에 성공하였다는 뉴우스가 아문젠의 귀를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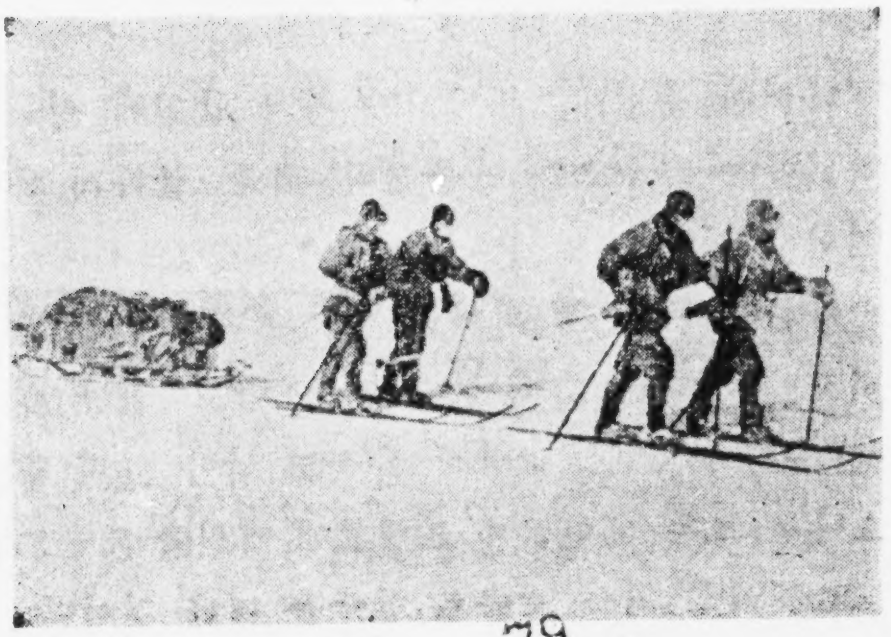
아문젠의 꿈은 피어리에게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실망(失望)하지 않았다. 남극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으냐? 그는 태연하게 프램호에 대원을 태우고 노르웨이의 서울 오슬로 항구를 떠난 것이다.

78

대원은 모두 북극을 탐험하러 가는 줄만 알았는데, 프램호가 항구를 멀리 떠나자, 아문젠은 대원을 모아 놓고 선언하였다.

"북극 탐험은 벌써 피어리가 성공하고 말았다. 우리는 북쪽으로 가려던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리자. 남쪽에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남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리하여, 프램호는 남극으로 향(向)하였다. 아문젠은 남극 대륙 로우즈 해안에 내려서, 다시 1,500 *km*를 썰매로 행진(行進)하여, 마침



79

내 지구의 돌대 위인 남극에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찍었다.

때는 바로 서기 1911 년 12월 14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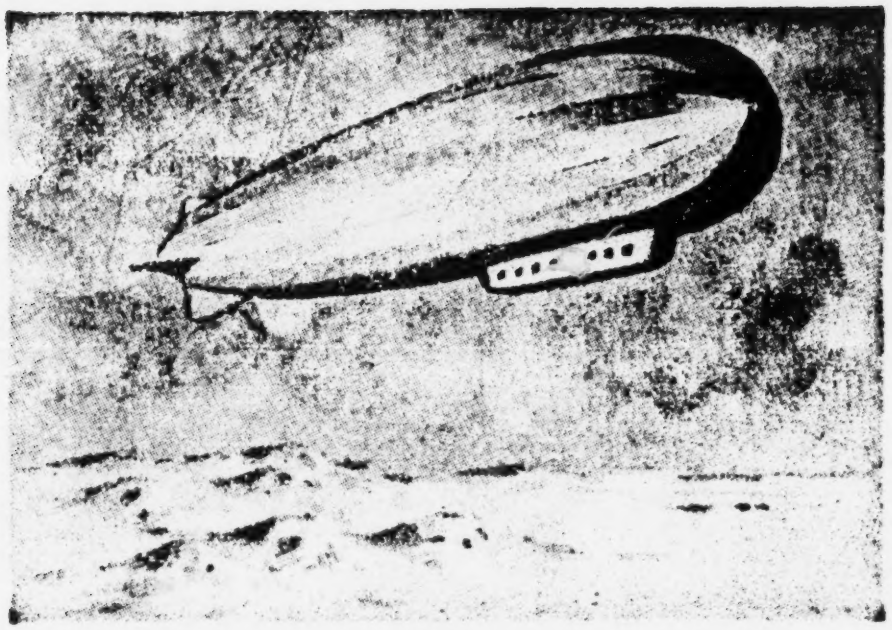
그러면, 남극과 북극은 어떠한 곳일까?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팽이처럼 자전을 하고 있다. 빙글빙글 도는 팽이를 보면, 돌대가 되는 점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다.

지구에도 이와 같은 회전(廻轉)의 돌대가 있고, 이 돌대의 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극지다.

우리는 이 돌대의 남쪽 끝을 남극, 북쪽 끝을 북극이라고 한다. 이 양극은 지구 가운데서 가장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일 년 내 눈과 얼음 속에 파묻혀 있으며, 또 일 년의 절반은 햇빛조차 볼 수 없는 곳이다.

사람은 물론 살 엄두도 못 내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한 마리의 새조차 그 그림자를 비칠 수 없는 곳이 이 극지다.

이 극지에 피어리와 아문젠이 첫발길을 들



여놓았을 때는, 아직 라디오도 없고, 비행기(飛行機)도 겨우 공중(空中)을 날 정도에 지나지 못하던 때였다.

그러나, 아문젠은 남극을 처음 탐험한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를 극지 탐험에 이용(利用)하여 보려고 여러 번 시험하였으나 불행(不幸)히 실패를 거듭하다가, 비행정 두 대로 북씨 88도 선까지 갈 수가 있었다. 이 때의 경험으로 극지 탐험에는 비행기보다 비행선이 적당(適當)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비행선으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것은 서기 1926 년 5월이었다.

이리하여, 아문젠으로 말미암아 탐험의 길이 확실히 열리게 되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투어 이 비밀의 땅 극지로 탐험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극지 탐험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아문젠이 북극 탐험을 하려고 출발(出發)하여 행방(行方) 불명(不明)이 된 노비레 소장을 구하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은 그가 쉰 일곱 살 때였다.

생각하면, 일생을 극지 탐험에 바치고, 이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려는 즈음 세상을 떠났으니, 참으로 아깝고 애닯은 일이었다.

극지 탐험은 그 후 과학(科學)의 발달과 탐험 기술의 향상(向上)으로 말미암아 놀랄 만큼 진보(進步)되었다. 미국의 버드 소장은 네 차례에 걸쳐, 일찌기 보지 못한 대규모의 인원과 준비로 최신(最新)의 과학을 이용하였다.

서기 1946 년부터 이듬해에 걸친 네 번 째의 남극 탐험에는 대원 4,000 명에 열 세 척의 배와 수많은 비행기를 출동(出動)시켰다.

이리하여, 남극도 북극과 같이 어느 정도 상세한 지도를 꾸미게 되었다.

지구가 생긴 후, 이제까지 알 길이 없던 극지의 비밀은 이제 우리 인류의 손으로 그 모습을 찾아 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석탄

(石炭)을 비롯한 수많은 지하 자원을 발견하였고, 교통(交通)의 요로(要路)를 발견하였으며, 더우기 심한 추위를 이용하여, 극지를 자연의 냉장고로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

극지 탐험은, 우리 인류가 영원(永遠)히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자연을 개척하고 이용하여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84

QUESTIONS

1. 무슨 대륙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서로 갈라 놓았읍니까?
2. 남극 북극지방은 무엇으로 싸여 있읍니까?
3. 아문젠은 멫 살 때에 어데를 탐험하려고 결심했읍니까?
4. 아문젠은 무엇을 읽고 감격하였읍니까?
5. 어떤사람이 탐험가가 될수있어요?

6. 아문젠은 무슨 방법으로 신체를 단련했읍니까?
7. 그분이 극지생활의 연습을 어떻게 했읍니까?
8. 아문젠은 탐험에 필요한 예비지식을 어데서 얻었읍니까?
9. 스물다섯 살 때 아문젠은 무슨 경험을 쌓았읍니까?
10. 북빙양 항로의 탐험 대장인 아문젠은 무슨 개척에 성공했어요?

11. 피어리가 무엇에 성공하여 아문젠을 놀라게 했어요?
12. 아문젠의 꿈이 왜 짓밟히고 말았읍니까?
13. 오슬로를 떠난 프램호의 대원은 어데 가는줄 알았어요?
14. 아문젠은 대원한테 무엇을 선언하였읍니까?
15. 아문젠은 남극에 닿기 위하여 썰매로 얼마나 행진했읍니까?

16. 아문젠은 언제 남극에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찍었어요?
17. 지구는 하루에 멫 번씩 자전을 하고있읍니까?
18. 극지에는 어떠한 동물하고 식물이 삽니까?
19. 극지 탐험에는 왜 비행기보다 비행선이 좋을까요?
20. 아문젠은 누구를 구하러 갔다가 희생이 되었읍니까?

VOCABULARY

극지	極地	pole; the polar region
탐험	探險	exploration
발견하다	發見	to discover
이룩하다		to accomplish
줄기차다		to be bursting with vitality
인류	人類	mankind
노력	努力	effort
모습		features
밝히다		to make it clear
고이고이		peacefully, nicely, carefully
간직하다		to put aside, store away
남극	南極	the South Pole
북극	北極	the North Pole
이바지하다		to contribute
극복하다	克服	to overcome
북빙양	北氷洋	the Arctic Ocean
영영	永永	forever
감격하다	感激	to be deeply moved
뜻		meaning, sense
권		recommendation
지구물리학	地球物理学	geophysics
예비지식	予備知識	preliminary knowledge
자기	磁氣	magnetism
팽이		toy top
자전하다	自轉	to turn on its ax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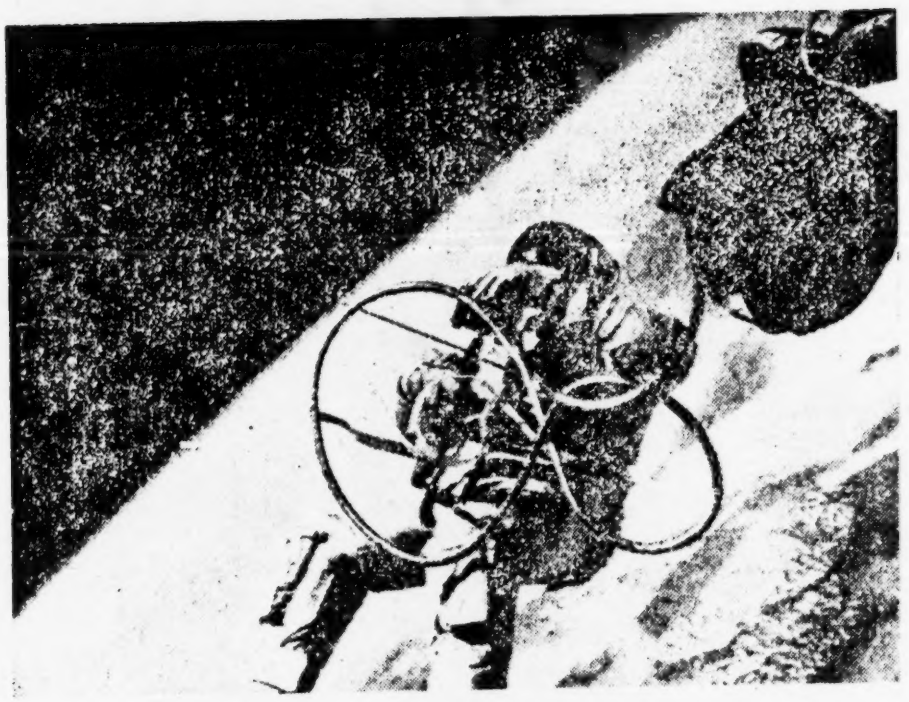
Fishing Scene
Chong Son (Kyomjae, 1676–1759)
Vertical scroll, ink on paper

Winter Landscape
An Gyon (Hyondongja, 1418–?)
Vertical scroll, ink and light color on silk
H. 29.7 cm; W. 23 cm
Collection of National Museum

87

Unit 9

우주 여행



막이 오른 우주 시대

사람들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이제까지, 자연을 정복하는 데 실로 놀랄 만한 솜씨를 보여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선 심지어 달이나 火星(화성) 등의 별에 가 보려는 꿈을 가지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이 꿈만은 하도 어려운 문제가 많

아서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몇 해 전에 人工 위성을 지구 둘레에 돌게 함으로써 이 꿈은 점점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19 세기에서 20 세기에 걷쳐 科學이 크게 發達함에 따라 技術도 高度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 사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 人工 위성의 發明이다.

이 人工 위성의 出現은 인류 역사상 그 의의가 자못 큰 것이다.

이 人工 위성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人間은 이제까지 지구 表面에서만 붙어 살다가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에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人間은 멀지 않아, 人工 위성을 지구 둘레를 돌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달이나 火星 같은 데에도 마음대로 往來할 수 있게 될 것이다. 人間이 우주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89

科學의 연구는 온 국민이

科學이 發達하면 사람들의 生活도 따라서 향상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科學이 發達한 덕택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科學이 그냥 저절로 發達하는 수는 없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물건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발명되거나 證明되기 위해선 거기엔 반드시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 1543년에 地動說을 주장하다가 처형을 받은 코페르니쿠스는 그 한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現在(현재)는 過去(과거)와 달라, 科學者들은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연구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 단독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協力하여 큰 연구를 하고 있다. 문명이 앞선 나라일수록, 번영하는 나라일수록 科學 연구에 힘쓰고, 科學者와 技術者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科

學者 자신들은 자기 개인의 살림과 명예를 돌보지 않고 겸손하게 연구에만 힘쓰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우리들은 미국의 우주 비행 계획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55년 머어큐리 계획이라는 우주 비행 계획을 세우고 예정대로 成功하고 있다. 그런데, 그 7인 우주 비행사 중의 한 사람인 존 글렌은 머어큐리 계획의 成功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머어큐리 계획이 成功한 것은 결국 두 가지 점이 갖추어졌기 때문인데, 그것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첫째는, 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강한 인내력으로 크게 協力했다는 점이요, 둘째는, 이 계획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임무에 대해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科學의 연구는 이에 참가한 모두가 각기 재능을 살려 서로 協力하고 헌신적으로 이바지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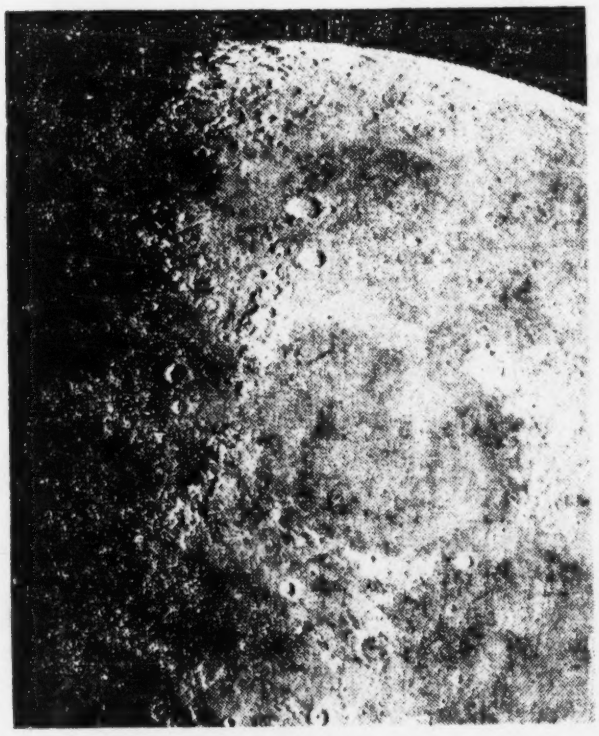
9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 위를 달리는 사람을 맞히려면 거리, 사람이 달리는 속도, 공의 속도 들을 생각하여 공을 던져야 한다. 로케트를 타고 달에 가는 데는 이 이치를 포함한 計算(계산)이 必要하다.

그러나, 달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고, 로케트와 달의 運動이 몹시 빠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단한 짐작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거리와 속도를 計算하려면 普通 算數로는 몇 해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전자 계산기를 써서, 이와 같이 아무리 어려운 計算이라도 몇 분 안에 하게 되었다.

또한, 달 여행은 몇 사람만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먹을 식량, 집 지을 재료, 여러 가지 관측 기계, 돌아올 때의 연료 들을 나르려면 수천 톤짜리의 로케트가 필요하다.

現在는 이렇게 힘이 센 로케트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시설을 갖춘 로케트를 달에 보내어 그 表面의 모양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장차 달의 表面이 충분히 연구될 것이다. 그리 되면 사람이 달에 갔다가 오는 것도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달에는 空氣와 물이 없다. 그러므로, 生物이 있을 리 없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바람 한 점 없을 것이니 그야말로 죽음의 世界라 할 것이다.

죽음의 世界, 그 곳을 사람들은 왜 가 보려고 할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世界를 보고 싶은 것이다. 달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다. 분화구라는 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科學者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싶은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 고장만을 天國으로 알고 탐험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世界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보고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文明은 現在와 같이 발달되지 못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QUESTIONS

1. 달에 처음으로 간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 달 나라로 둘째번에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인간은 언제쯤에 화성에 가게 될까요?
4. 인공위성은 언제 처음으로 출현했다고 합니까?
5. 미국에서 우주 여행을 하려고 한 사람은 다 성공했읍니까?

6. 어느 과학적 사실이 발명되거나 증명되기가 늘 용이했읍니까?
7. 코페르니쿠스는 무엇을 하다가 처형을 받았어요?
8. 지동설을 간단히 설명 해 보십시오
9. 과거에 과학자는 누구나 다 국가 혹은 사회의 후원을 받았어요?
10. 현재는 과학을 연구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11. 과학자와 기술자의 대우가 현재 어떻습니까?
12. 현재의 연구 경향은 어떻다고 할수 있읍니까?
13. 미국의 머어큐리 계획은 언제 시작했고 결과가 어땠읍니까?
14. 머어큐리 계획이 성공한 이유의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15. 둘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16. 우주 여행에 필요한 거리와 속도 같은 계산은 하기가 어렵습니까?
17. 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많습니까?
18. 달에는 왜 생물이 없을까요?
19. 달을 왜 죽음의 세계라고 할까요?
20. 현재 달에 갔다오는데 몇일이나 걸립니까?

VOCABULARY

우주	宇宙	the universe
화성	火星	Mars
인공 위성	人工衛星	sputnick
위성		satellite
기술	技術	technique
고도로	高度	highly
출현	出現	appearance
표면	表面	surface
왕래	往來	comings and goings
...을 막론하고	莫論	to say nothing of
증명하다	證明	to verify, prove
희생		sacrifice
지동설	地動說	the heliocentric theory, Copernican theory
처형	處刑	punishment
과거	過去	past
온갖		all sorts of
힘을 기울이다		to concentrate one's energy
협력하다	協力	to cooperate
우대하다		to treat preferentially
겸손하다		to be humble
우주비행사	宇宙飛行士	astronaut
인내	忍耐	endurance
헌신적		devotional
이바지하다		to contribute, renders service
계산기		calculating machine

A panoramic view of the Han River which flows through Seoul.

Unit 10

자연의 이용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영국은 독일軍의 공격으로, 국가의 흥망이 갈리려는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에, 영국 수상의 重大 任務를 맡고 밤낮으로 전쟁을 지휘하던 처어칠 씨가 갑자기 폐염에 걸려 生命이 위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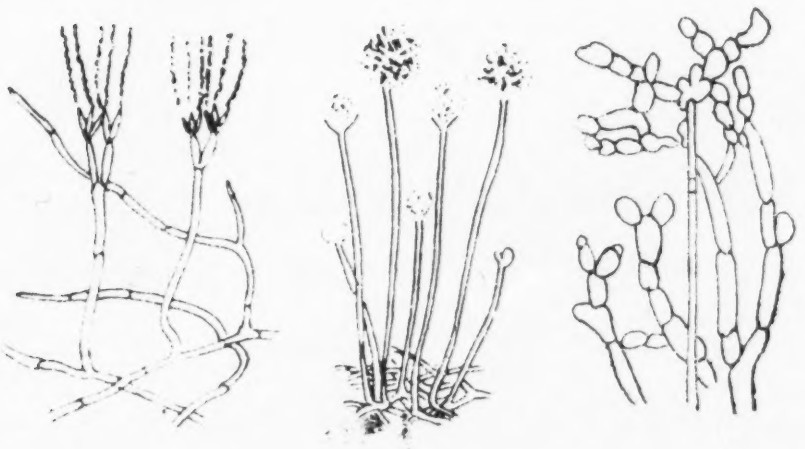
처어칠 씨의 生死는, 영국 국민은 물론, 민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컸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처어칠 씨의 病勢(병세)에 대하여 重大한 관심을 가지고 근심하였다. 그런데, 페니실린(이)라는 藥을 주사한 결과, 처어칠 씨는 불과 사흘 만에 완쾌하고 말았다. 걱정하던 사람들은 한편 기뻐하고, 한편 놀라서, 대체 페니실린이란 무엇이기에 그렇게 신효한 藥인가 하고 신기하게 여겼다.

이 페니실린은, 지금부터 약 40 년 전에 영

국의 과학자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륨 노타툼'이라는 일종의 푸른곰팡이에서 만든 藥이다. 그 구저분한 곰팡이가 세계의 注目(주목)을 끌며 영국 수상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페니실린은 서어칠 씨뿐만 아니라, 벌써 몇십만, 몇백만 명의 귀중한 人命을 구했는지 모른다. 곰팡이의 힘도 이쯤 되면 偉大하다 아니 할 수 없다.

飮食物에 시커멓게 피는 곰팡이, 장마철에 옷과 구두에 피는 구저분한 곰팡이를 좋아하고



99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저분한 곰팡이를 사람들은 페니실린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생활에 이용하여 왔다. 사람들은 전부터 곰팡이가 핀 누룩과 메주로 술을 빚고 간장을 담가 왔던 것이다.

옛날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여겨 왔던 폐결핵의 特效藥(특효약)으로 쓰이는 스트렙토마이신도, 사실은 땅 속에 사는 박테리아의 일종에서 얻은 것이라면 아마 놀랄 것이다.

이처럼 自然은 언제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恩惠(은혜)를 베푼다. 구저분한 곰팡이, 박테리아 같은 것까지도 우리 人類에게 끼치는 이익은 참으로 크다.

이것은 오로지 自然을 무심히 보지 않고, 그 성질을 연구하여, 그 有益한 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人類에게 보낸 自然의 선물인 것이다.

自然界에는 여러 動物이 살고 있다. 코끼리

와 고래와 같은 몸집이 큰 것도 있고, 다람쥐나 토끼 같은 작은 것도 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있는가 하면, 땅 속에 사는 두더지와 지렁이 같은 것도 있다.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動物의 공통된 점은, 어느 것이나 自然을 잘 이용하거나, 自然과 싸워 제각기 生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動物은 잠시라도 自然을 떠나서는 生命을 유지할 수가 없다. 즐겁게 노래 부르며 춤추는 듯이 보이는 예쁜 새도, 실상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열매와 벌레를 찾아다녀야 하고, 비바람을 만나면, 나무 그늘과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를 피해야 한다. 눈보라치는 겨울 동안을 먼 南國에 가서 사는 새도 自然 환경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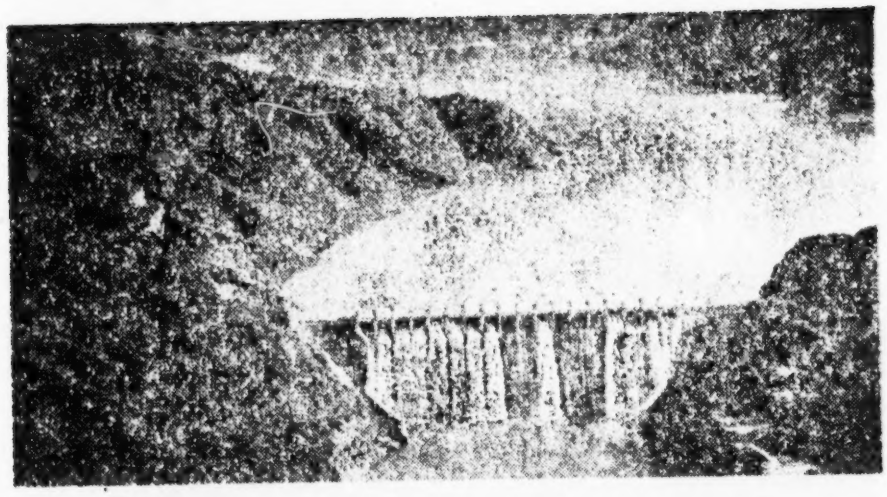
살려는 노력은 새와 같은 動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나 풀과 같은 植物도 비록 자리를 떠나 움직이지는 못하나, 自然 속에서 養分을 얻고 힘을 얻어서 자라나고,

또 自然의 힘으로 그 씨를 퍼뜨리고 있다. 곰팡이가 밥이나 옷에 구저분하게 피어나는 것이나, 바람에 홀씨를 날려 씨를 퍼뜨리는 것이나 다 自然을 상대로 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動物, 植物 할 것 없이, 모든 生物은 自然 속에서 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람도 역시 動物인만큼, 다른 動物과 같이 自然을 떠나서 살아 나갈 수는 없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얼마나 自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우리는 자나 깨나 떠날 수 없는 自然에 대하여, 때로는 아름답게 느끼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한다. 따뜻한 봄날에 꽃을 찾고, 또는 가을 밤 밝은 달빛을 즐기는가 하면, 지리한 장마에 햇빛을 그리워하고, 살을 에는 겨울 바람에 오들오들 떨기도 한다.

그러나, 自然은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사람의 사정에 따라 움직여 주지는 않



는다. 가물에 곡식이 말라 죽을까 염려하여 비를 내리는 법도 없고,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도 그칠 줄 모르는 것이 自然이다. 비와 모진 바람은 오직 저기압과 태풍에 따를 뿐이요, 우리들의 소원과 希望(희망)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自然은 우리에게 편의도 주고 불편도 준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여 더욱 보람찬 생활을 하려고 할 따름이다.

사람은 오랜 동안 自然과 싸우고, 이것을 이용하는 동안에, 成功과 失敗(실패)를 거듭한 결과로, 우리의 소원과 希望대로 이를 이용하는 길을 텄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성질을 알아,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서 發電을 하게 되었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아, 가을이 가기 전에 미리 겨울 준비를 하게 되었다.

自然界의 모든 성질을 自然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自然의 법칙을 밝히는 學問이 곧 科學이다. 아무리 복잡한 自然의 현상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다.

人類는 이 自然의 비밀을 알아 내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自然의 법칙을 한번 알아챈 후에는, 이것을 이용하고 대비하여 생활을 점점 향상시켜 왔다.

옛날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을 두려워하였지만, 이제 그 정체를 알아 낸 후에는, 피뢰침으로 벼락을 막을 줄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電氣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電氣 文明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自然 이용은 그칠 바를 모르고 눈부시게 연구되어, 합성 섬유이니, 합성 수지를 發明하고, 第三의 불이라는 원자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일찌기 꿈에서나 생각했던 우주 여행의 달성을 눈앞에 바라보게까지 되었다.

이와 같이, 科學의 발달은 곧 自然의 비밀을 알아 내는 데에 있으며, 文明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自然의 이용은 곧 人類 문화의 향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5

QUESTIONS

1. 제二차세계대전때에 영국은 왜 위급한 처지에 있었어요?
2. 처어칠씨의 직무와 임무가 무엇이었어요?
3. 처어칠씨는 무슨 병에 걸리고 병세가 어땠읍니까?
4. 세계 각국이 왜 그분의 병세에 대하여 근심했읍니까?
5. 처어칠씨는 무슨치료를 받고 어떻게 됐읍니까?

6. 페니실린은 누가 무엇으로 만든 약입니까?
7. 곰팡이의 힘도 위대하다는 말을 왜 하게 됐을까요?
8. 곰팡이를 페니실린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무엇에 썼읍니까?
9. 스트렙토마이신은 무엇에 쓰는 약입니까?
10. 몸집이 큰 동물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11. 몸집이 작은 동물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12. 땅 속에 사는 동물에는 무엇이 있읍니까?
13. 겨울에 남국에 가서 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4. 식물은 동물같이 자연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15. 사람은 자연에 대하여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16. 사람은 자연에 대하여 무엇을 아름답게 느낍니까?
17. 자연의 무슨성질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게 됐읍니까?
18. 자연의 법칙이라면 예를들면 무엇입니까?
19. 피뢰침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됩니까?
20. 합성섬유는 무엇입니까?

VOCABULARY

흥망	興亡	rise and/or fall
중대임무	重大任務	important mission
폐염	肺炎	pneumonia
생명	生命	life (physical)
위독하다	危篤	to be in a critical condition
생사	生死	life and death
병세	病勢	condition of a disease
중대하다	重大	to be serious
완쾌하다		to be cured completely
주목을 끌다	注目	to attract one's attention
인명	人命	human life (physical)
위대하다	偉大	to be great
음식물	飮食物	food
구저분하다		to be shabby
특효약	特効藥	specific medicine
자연	自然	nature
은혜	恩惠	benefits, favors, goodness
인류	人類	mankind
유익하다	有益	to be beneficial
식물	植物	trees and plants
양분	養分	nutritional elements
생물	生物	living thing
저기압	低氣压	low atmospheric pressure
태풍	颱風	typhoon
성공	成功	success

Unit 11

기사 임명식

스페인의 어느 두메에 키하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쉰을 바라보는데, 항상 무용담(武勇談)을 좋아하고, 기사 이야기 읽기에 골몰하였다.

그는 항상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수염을 치켜 꼬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면서 점잖게 책을 읽다가, 흥이 나면 눈앞의 적과 대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곤 하였다.

"나야말로 정의의 사도다. 자, 덤벼라! 도망함은 비겁하다. 어서 창을 들고 싸우지 못할까!"

그것도 부족하면 눈을 부릅뜨고 발을 구르며,

"야, 에잇!"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책에 미친 노인은 꼭 기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기사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없애고 약한 자를 구하겠다고 생각하

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노인은 곧 광으로 가서 갑옷과 투구를 꺼내 왔다. 선조 때부터 대대로 전해 온 물건이라 케케묵은 데다가 녹슬고 낡아서, 도저히 그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덜거덕거리는 갑옷과 투구를 일일이 철사와 실로 얽어매고 꿰매어 정성껏 고쳤다.

그리고는 마굿간으로 달려가 말 한 필을 끌고 나왔다. 그 말은 나이가 많은 데다가 말라 빠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형편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눈에는 이 말이야말로 옛날 기사들이 타고 다니던 명마로 보였다.

그는 말의 잔등이를 두드리며,

"자,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이다. 네게 가장 좋은 이름 '로시난테'를 붙여 주마."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름 '로시난테'는 '형편 없는 낡은 말'이란 뜻이었다.

109

그는 둘레를 살펴본 다음 다시 중얼거렸다.

"이만하면 준비는 끝났겠지. 아차! 가장 중요한 내 이름을 짓지 않았군. 기사다운 위엄을 나타내며, 용감하고 훌륭하게 들리는 이름이라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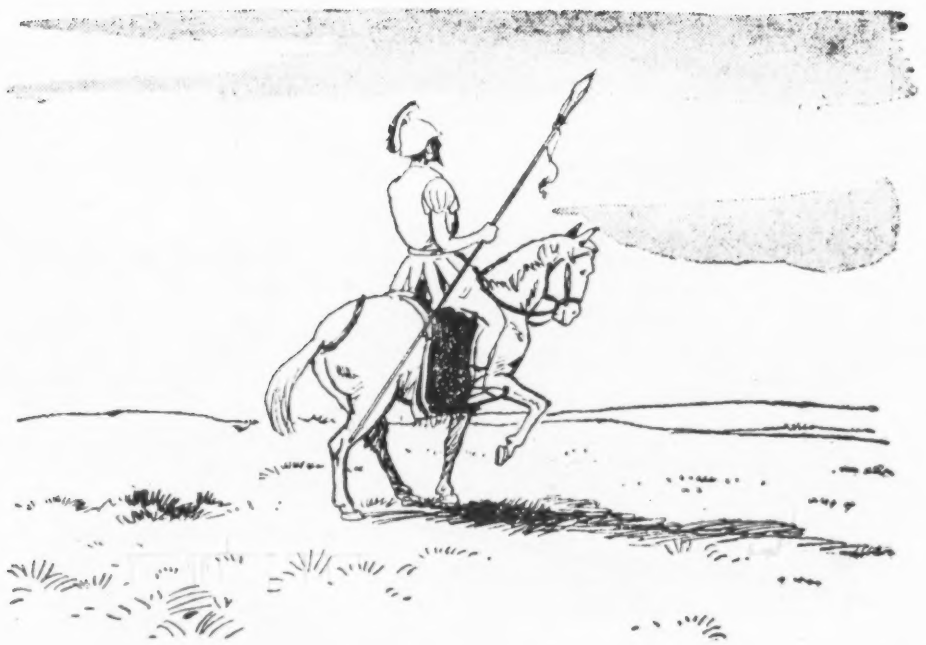
그러나, 갑자기 좋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노인은 1 주일이나 생각한 끝에, 드디어 '돈키호테'라는 이름으로 결정하고, 바로 무술 修業(수업)을 떠나기로 하였다.

어느 여름날 새벽이었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다음, 창을 겨드랑이에 끼고 그의 애마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로시난테야, 이제부터 기사 돈키호테는, 너와 더불어 무술 修業에 출발하느니라. 자, 가자."

두메를 나온 돈키호테는 너른 벌판을 지나갈 때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는 말 위에서,



만족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들어라, 세상의 이야기 작가여! 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려면, '먼동이 불그스름하게 틀 무렵,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지평선에서 장밋빛의 눈부신 해가 떠오르려 할 때, 세상에 이름 높은 기사 돈키호테는 명마 로시난테를 타고, 저 유명한 온티에일의 벌판을 건너간다.' 라고 써 다오."

그는 계속해서 벌판을 지나갔다.

해가 떠오르자 날씨가 매우 더웠다. 그늘도

없는 들을 가는 돈키호테는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고 배가 고파서, 눈까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 때, 훌륭한 성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나 반가와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굉장한 성이로구나! 성문 위에 난장이들이 나타나 나팔을 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책에는 씌어 있었거든.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임금님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나, 무슨 도리가 있겠지. 잠깐만 기다려 보자."

돈키호테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고대하며 성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 때, '또또 뚜뚜' 하고 분명히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아, 이건 참 황공하군!"

돈키호테는 서슴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십시오."

몸집이 뚱뚱한 주인이 안에서 나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고개를 든 주인은,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돈키호테는 한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하였다.

"황공하옵게도 임금님께서 이와 같이 일부러 마중까지 나오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읍니다."

돈키호테는 이 집이 호텔인 것을 모르고 궁전으로 잘못 알았으며, 몸집이 뚱뚱한 호텔 주인을 임금님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주인은, 돈키호테가 몸차림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래도 손님인 까닭에 그를 방으로 모셔 들여 저녁 상을 차려 왔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투구의 면을 어떻게 단단히 철사로 얽어매었던지 좀처럼 풀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시장하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주인은 하는 수 없이 면을 빼개고, 그 사이로

113

식사를 하게 하였다.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임금님, 아시다시피 기사는 갑옷과 투구를 모시는 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갑옷을 궁전의 본채 앞에 모셔 놓고 밤새 지키겠읍니다."

"마음대로 하시지."

주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임금님,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야기책에 의하면, 기사는 무술 修業에 나와서 맨 먼저 만난 분에게서 기사 임명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꼭 기사 임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나, 아뭏든 내일 아침에 당신을 기사로 임명하겠소."

주인은 귀찮은 듯이 대답하였다.

호텔 마당에는 말에게 먹일 물을 길어 놓은 물통이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것이 마치 제단처럼 보여, 갑옷을 물통 뚜껑 위에 놓고 엄숙히 말했다.

114

"이제부터 갑옷과 투구를 모시는 식을 올리느니라. 누구나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

돈키호테는 물통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지켰다. 이윽고,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와졌다. 그 때, 마부가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마당에 나와 물통 뚜껑을 열려고 갑옷에 손을 대었다.

"이놈, 무례한지고! 갑옷에 손을 대다니 그냥 둘 수 없다. 자, 승패를 가리자."

돈키호테는 소리를 지르며 마부에게 달려들어 창을 겨누었다.

"사람 살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마부를 쫓아가서 찌르고 때리고 하여 야단법석이 나자, 호텔 안은 온통 수라장이 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까무러치듯 놀란 호텔 주인은, 이 괴상한 사람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핑계를

대어 얼른 내쫓으려고, 진짜 임금님처럼 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이제부터 네 기사 임명식을 하리라."

"예, 그저 황공하오이다."

돈키호테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주인은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들고 나와, 기도를 드리듯이 엄숙한 목소리로 장부를 읽었다.

"에, 보리 세 가마를 마차에 싣고, 콩 한 되는 말에게 먹이고……"

116

돈키호테는 정말 기도를 드리는 줄 알고, 엄숙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장부를 읽고 난 주인은 읽던 장부를 둘둘 말아 돈키호테의 목덜미를 힘껏 내리쳤다.

"자, 이걸로 식은 다 끝났느니라."

돈키호테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아픔을 꾹 참고 인사를 하였다.

"황공하오이다. 이것으로 소인도 당당한 기사가 되었읍니다. 이제부터 소인은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를 누르기 위하여, 곧 길을 떠나겠읍니다."

그는 아직 밝지도 않은 새벽 길을 로시난테를 타고 자랑스럽고 씩씩한 기분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117

QUESTIONS

1. 키하나라는 노인은 나이가 몇 살이며 무엇을 좋아했읍니까?
2. 그이는 흠이 나면 무엇이라고 외쳤읍니까?
3. 그이는 기사가 되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4. 그 이는 무엇으로 무장했읍니까?
5. 그이한테는 무엇이 명마로 보였읍니까?

6. 그이는 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였읍니까?
7. 그말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8. 그이는 자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읍니까?
9. 돈키호테는 무엇을 하러 출발했어요?
10. 몬티에밀의 벌판을 지나가는데 그이는 왜 눈이 희미해졌어요?

11. 돈키호테가 훌륭한 성인줄 안 집이 사실은 무엇이었읍니까?
12. 몸집이 뚱뚱한 주인을 무엇으로 잘못 말았어요?
13. 돈키호테는 어떻게 식사를 했읍니까?
14. 그 이는 무엇을 밤새 지킨다고 했읍니까?
15. 돈키호테는 누구한테 기사 임명을 받겠다고 했어요?

16. 돈키호테는 누구보고 무례하다고 했어요?
17. 누가 왜 사람 살리라고 했어요?
18. 호텔 주인이 왜 진짜 임금님처럼 행동을 했읍니까?
19. 기사 임명식에 주인은 무엇을 읽었어요?
20. 돈키호테는 무슨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읍니까?

118

VOCABULARY

기사	騎士	knight
임명	任命	appointment
두메		village
무용담	武勇談	tale of bravery
엄지 손가락		thumb
집게손가락		index finger
어루만지다		to feel, stroke
점잖다		to be dignified, genteel
흥이나다	興	to get merry
정의	正義	justice
사도	使徒	apostle
덤벼라!		now come on (take me on)!
비겁하다		to be cowardly
고래고래 고함을질르다		to raise a lot of shouts
부정	不正	unjustice
갑옷	甲	armor
투구		helmet
선조	先祖	ancestor
녹쓸다		to become rusty
얽어매다		to bind up
마굿간		stable
로시난테		Rosinante
돈키호테		Don Quixote
무술	武術	military arts
수업	修業	study, pursuit of knowledge

Unit 12

아저씨를 모시고

정 태 시
鄭 泰 時

은희는 어느 일요일 중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저씨를 찾아서, 재미있는 외국 기행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읍니다.

은 희: 아저씨,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저씨: 오, 은희냐! 그 동안 공부 잘했니? 친구들과 같이 왔구나.

은 희: 아저씨, 오늘 좀 한가하셔요? 이번에 유럽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해 주셔요.

아저씨: 오, 그래. 그럼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 내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와서 우선 느낀 것은 世界가 한 마을처럼 좁아져 간다는 것이다. 내가 30년 전에 배로 유럽에 갔을 때에는, 印度洋을 거쳐서 프랑스의 *마르세이유까지 가는 데만 거의 한 달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불과 4주일 남짓한 동안에 유럽의 웬만한 나라는 다 골고루 視察하고 왔으니까 말이다.

120

혜 진: 가실 적에는 어디로 해서 가셨어요?

아저씨: 내가 갈 적엔 서울은 國際航空路線에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선 토오쿄오에 가서 S.A.S. 旅客機를 타고 北極航路로 해서 *코펜하겐에 내렸다. 航空時間은 불과 17시간밖에 안 걸렸으니, 배로 가는 것과 比較하면 눈깜짝할 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원 숙: 어마, 참 빠르군요. S.A.S.라는 것은 무어에요

아저씨: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가 合同해서 運營하는 航空會社 이름인데, 세계에서 네째로 큰 회사란다.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 회사는 무엇인지 아니?

은 희: 팬 아메리칸 항공 회사이지요. P.A.A.라고 쓰는……

아저씨: 그렇다. 그 밖에도 英國의 B.O.A.C., 도이칠란트의 루프트 한자(L.H.), 프랑스의 에에르 프랑스(A.F.), 스위스의 스위스 에어(S.R.), 일본의 일본 항공(J.A.L.) 같은 이름높은 국제 항공 회사의 여객기가 온 세계 重要 都市 사이를 定期的

으로 날고 있어서, 어느 중요 도시든지 불과 10 여 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20世紀를 항공 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當然한 말이지.

혜 진: 참 그렇군요. 아지씨, 코펜하겐에 내리신 첫 印象은 어떠하셨어요?

아저씨: 飛行場은 말하자면 집의 대문간과 같아서 어느 나라 국제 공항이든지 치장이 대단한데, 코펜하겐 공항도 굉장하더라. 과연 덴마아크가 國民所得이 1300 달러를 넘는 先進國家요, 코펜하겐이 '북 유럽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모든 시설이 으리으리하고 科學的으로 되어 있는 데 놀랐다.

원 숙: 그러면, 비행장의 크기도 우리 金浦空港보다는 굉장히 크겠지요?

아저씨: 아마 우리 김포 공항의 20배는 되어 보이더라. 그런데, 이 코펜하겐에는 어찌나 손님이 많던지 호텔이란 호텔은 모두 초만원이더라.

은 희: 왜 호텔에는 그렇게 손님이 많았을까요?

아저씨: 생활에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학교뿐 아니라 관공서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다 交代로 휴가를 얻어서 旅行을 다니기 때문

에, 유럽의 여름은 觀光客의 사태를 이룬단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諸國같이 날씨가 시원하고 경치가 좋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양이더라.

혜 진: 저 같은 中學生도 여행을 많이 다니나요?

아저씨: 암, 다니다마다. 영국의 중학생들이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오는 것은 약과다. 미국의 중학생들까지 수십 명씩 떼를 지어서 大西洋까지 건너와서는 명승 고적을 구경하며 산과 들에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한단다.

혜 진: 참 부럽군요. 그런데, 아저씨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생각하신 나라는 어디여요?

아저씨: 글쎄, 좋은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제일 맘에 들더라.

원 숙: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란 스칸디나비아 半島에 있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혜 진: 아니다. 그 두 나라에다 덴마아크와 핀란드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래.

아저씨: 그렇다. 그 네 나라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서 그야말로 스칸디나비아 合衆國이라고 불릴 만큼

123

의좋게 지내는 것이 내일의 人類歷史를 위해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를 일이다.

혜 진: 그 네 나라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나요?

아저씨: 그렇지 않다. 네 나라가 다 자기 나라 말을 따로 가지고 있지마는, 말이 서로 비슷해서, 일부러 배우지 아니하더라도 알아 들을 수는 있을 정도이며, 세계에서 이름난 복지 국가요, 第一級에 속하는 선진 국가들이다. 그런데, 여기선 거지란 찾아볼 수도 없고, 失業者도 없으며, 모든 국민이 다 깨끗하고 洗練된 살림을 하고 있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스칸디나비아 제국 같다면 유우엔의 理想이 實現될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다.

은 희: 그럼,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아저씨: 그러게 말이다. 人口로 보나, 天然資源으로 보나, 氣候로 보나 그럴 條件이 많지…… 참 기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아프리카에서 *스톡홀름으로 留學을 온 학생이, 스웨덴에는 겨울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화이트 윈터'이고, 또 하나는

124

'그리인 윈티'라는 명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 있단다. 겨울이 춥고 긴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여자들이 털외투를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단다. 이러한 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잘살게 된 것은, 結局 그 國民들이 敎育을 올바르게 받아서 법을 잘 지키고 창의적으로 연구를 하며 부지런히 産業을 開發한 덕분이겠지.

원 숙: 작은 나라 중 잘사는 나라로서는 스위스도 꽤 유명하지 않아요?

아저씨: 그렇단다. 스위스도 인구가 500만밖에 되지 않고, 천연 자원은 스칸디나비아 제국만도 못하지만, 국민 소득으로 보면 세계에서 제 4 위를 차지하고 있단다.

은 희: 스위스의 국어는 스위스말인가요?

아저씨: 스위스에는 統一된 國語가 없고, 도이칠란트말을 쓰는 사람들이 약 74 %, 프랑스말을 쓰는 사람들이 약 20 %이며, 나머지는 이탈리아말을 쓰고 있단다.

혜 진: 스위스는 매우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마나

125

스위스의 산 경치

아름답죠?

아저씨: 그야 말할 것이 있나. 스위스는 '世界의 公園'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딜 가나 알프스의 높은 산과 맑은 호수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끌지만, 특히 제네바의 *레망 호수 가에 서서 *몽블랑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天國에 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은 희: 아저씨, 約束드린 시간도 이제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영국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아저씨: 영국은 흔히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그랬었지마는, 특히 이 영국에

서는 外國 사람인 나한테 어찌나 親切한지 큰 感動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댕큐우'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어서, 가령 食堂에서 웨이터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서도 '댕큐우', 버스 차장이 料金을 받을 때에도 '댕큐우',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댕큐우' 해야 하니, 영국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수십 번씩은 '댕큐우'를 해야 사는 모양이더라. 영국이 지금도 大英聯邦을 거느리고 國際舞臺에서 크나큰 指導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국 사람의 신사도와 끈기 있고 다부진 國民性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겠지.

원 숙: 아지씨께서 밖에 나가실 시간이 되었으니, 이젠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은 희: 그럼 아지씨, 藝術의 도시 '파리' 이야기와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서독 이야기, 그 밖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요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셔서 들려 주셔요, 예!

아저씨: 응, 그리지. 요다음에는 미리 電話를 걸고 좀 한가한 때 다시 놀러 오너라. 그때엔 아지씨가 슬라이드도 구경시켜 주마.

127

혜 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또, 오겠읍니다. 安寧히 계셔요.

원 숙: 안녕히 계셔요.

주

마르세이유(Marseilles) : 프랑스 남쪽 로온 강(Rhône 江) 어귀 동쪽 40 km에 있는 지중해 최대의 프랑스 무역항.

코펜하겐(Copenhagen) : 덴마아크의 서울.

스톡홀롬(Stockholm) : 스웨덴의 서울.

레망(Léman) 호수 : 스위스 남서단에 있는 호수. 제네바 호라고도 부른다.

몽블랑(Mont Blanc) : 스위스에 가까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솟은 알프스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높이 4810 m.

QUESTIONS

1. 三十年前하고 지금은 世界가 어떻게 달라졌읍니까?
2. 어데서 어데까지 가는데 17시간밖에 안걸렸어요?
3. 世界에서 第一큰 航空会社는 무엇입니까?
4. S.A.S.는 世界에서 멫째로큰 회사입니까?
5. 덴마아크의 國民所得은 얼마입니까?

6. 美國의 國民所得은 얼마입니까?
7. 先進國家라면 대개 어떤 나라를 가르쳐 말 합니까?
8. 코펜하겐에는 왜 손님이 많았을까요?
9.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란 어느 나라 입니까?
10. 스칸디나비아 合衆國이라고 불르는 理由가 무엇일까요?

11. 유우엔의 理想에 對해서 무슨例를 들었읍니까?
12. 수웨덴에는 왜 겨울이 두 번 있다고 했읍니까?
13. 스칸디나비아 제국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14. 스위스 국민소득은 어떻습니까?
15. 스위스에서는 국민들이 무슨 말을 쓰고있읍니까?

16. 왜 스위스를 '世界의 公園'이라고 합니까?
17. 영국을 왜 신사의 나라라고 합니까?
18. 파리를 흔히 무슨 도시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VOCABULARY

인도양	印度洋	the Indian Ocean
시찰	視察	observation
항공노선	航空路線	flight course
북극항로	北極航路	North Pole route
비교	比較	comparison
합동	合同	joint
운영	運營	operation, management
정기적	定期的	regular
세기	世紀	century
당연하다	當然	to be natural
인상	印象	impression
국민소득	國民所得	per capita income
선진국가	先進國家	advanced nation
과학적	科学的	scientific
교대	交代	shift, taking turns
관광객	觀光客	tourist
제국	諸國	all countries, various countries
대서양	大西洋	the Atlantic Ocean
합중국	合衆國	the U.S.A.
인류역사	人類歷史	the history of man
실업자	失業者	the unemployed
세련되다	洗練	to be refined
이상	理想	ideal
천연자원	天然資源	natural resources
국민성	國民性	national (people's) character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로 지정된 서울 남대문. 서기1395년 리태조가 서울의 성을 쌓을때 착공되여 1398년에 완공되였다. 리조시대 건축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으로도 불리웠으며 리조 건축물중 가장 오래된것의 하나다.

131

Unit 13

책을 읽고

내가 요즈음 읽고 크게 감격(感激)한 책은 '톰 아저씨'입니다. 이 책은 '스토우'라는 부인(婦人)이 지은 것인데, 원 이름은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한답니다.

이 책의 대강 줄거리는 다음과 같읍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셀비라는 사람의 집에, 톰이라는 검둥이 노예가 있었읍니다.

톰은 몸이 튼튼하여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다음씨가 곧고 친절(親切)하여, 집 주인(主人)에게 특별(特別)한 사랑을 받았읍니다.

톰의 집 주인 셀비의 아들 조오지는, 언제나 톰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서, 톰은 그에게 글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런데, 불행(不幸)하게도 셀비는 남의 빚을 많이 지게 되어, 할 수 없이 노예들을 남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

때는 집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남에게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팔려 갈 때는 그 집안 식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과 동생, 모두 노예 장수 손에서 아무 데로나 팔려 가게 되는 것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도 여자(女子) 노예로 있던 엘리자는, 자기(自己)가 가장 귀여워하는 딸 해리가 남의 손에 팔려 가는 것이 안타까와서, 마

침내 해리를 안고, 얼음이 물려 떠내려가는 미시시피강을 건너 멀리 도망을 가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노예는 잡히기만 하면 사형을 받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톰은 하는 수 없이, 그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울며 매달리는 것을 억지로 달래 놓고, 고랑쇠로 묶인 발을 끌면서 셀비의 집을 떠났읍니다. 친절한 주인 셀비는 톰에게, 만약에 재산(財産)을 모으게 되면 도로찾으러 가겠다고 굳게 약속(約束)을 하였읍니다.

톰은 노예 장수에게 끌리어서, 배를 타고 미시시피강을 따라 내려갔읍니다. 그 동안 톰은, 같은 검둥이 노예들이 얼마나 구박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고, 검둥이의 슬픔을 뼈아프게 느꼈읍니다.

그러자 어느 날, 에바라는 어린 소녀(少女)가 강물에 빠졌읍니다. 톰은 곧 물로 뛰어들어가서 건져 냈읍니다. 에바의 아버지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톰을 사서 뉴우오올리

안즈라는 도시(都市)로 데리고 갔읍니다.

톰은 그 집에서 한 동안 행복(幸福)하게 지낼 수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몸이 약(弱)한 에바가 병(病)이 들어 죽고, 주인마저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까닭에, 또 다시 여러 검둥이들과 함께 다른 주인에게 팔리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만난 주인은 농장(農場)을 경영(經營)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씨가 아주 나빠서 어떻게 노예를 마구 부려먹는지, 톰은 하루 하루를 피를 짜 내는 것 같은 괴로움으로 보내게 되었읍니다. 하루는 마음씨 착한 톰이, 일을 잘 못 하는 다른 노예에게, 자기가 딴 목화를 나누어 준 것이 발각되어, 톰은 주인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읍니다. 이 때문에, 튼튼하던 톰도 병이 들어 그의 몸은 날로 야위어 갔읍니다. 그러나, 그의 희망(希望)은 한가지, 행여나 그 전 주인인 셀비가 자기를 도로 찾으러 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조오지 도련님도 만나게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농장 주인은 더욱더 못살게 굴고, 몸은 점점 약해지기만 하였읍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톰은 도망하려는 여자 노예를 도와 준 일이 드러나서, 또 주인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읍니다.

그 때에, 이미 훌륭한 청년(青年)이 된 조오지는 톰을 찾으러 사방(四方)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톰이 있는

곳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늦어서, 아깝게도 톰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읍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은 뒤이었읍니다.

조오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극진하게 장사지내 주었읍니다.

톰의 무덤 앞에 꿇어앉은 조오지는, 하느님께 절대로 노예를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에 부리던 노예들을 전부(全部) 해방(解放)하여 주었읍니다.

이 이야기는 스토우 부인이 미국(美國)의 여러 주(州)를 두루 돌아다니며, 노예들이 얼마나 불쌍한 생활(生活)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노예 해방을 위하여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노예를 해방하는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問題)가 크게 일어나서, '톰 아저씨'는 일 년 동안에 30만 부(部)나 팔렸다고 하니, 이 책의 내용(內容)을 여러분은 짐작하실 줄 믿읍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세계(世界)에서 가장 문화(文化)가 발달(發達)된 나라이지만, 100 년 전만 하여도 새로 독립(獨立)한 나라로서, 나라의 통일(統一)도 안 되고 문화도 뒤떨어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노예를 부려먹는 제도(制度)이었읍니다. 그들은 자유(自由)를 위하여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사들인 검둥이를 노예로 부려먹고, 또 그 노예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一部)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노예들의 딱한 사정에 동정(同情)을 하고, "누구나 다 같이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주장(主張)이 나왔읍니다. 그러한 주장이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大統領) 링컨을 대표로 움직여서, 남북 전쟁(南北戰爭)의 원인(原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톰 아저씨'라는 책은 역사적(歷史的)으로 보아 매우

흥미(興味)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비록 살갗의 빛은 다르지만, 비록 노예로 팔려서 남의 집 일은 하고 있지만, 톰의 사람다운 거룩한 마음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눈물 없이는 읽어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한 사람의 연약한 부인의 글이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인류(人類)의 역사를 빛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읍니다.

QUESTIONS

1. "톰 아저씨"라는 책은 누가 쓴 책입니까?
2. 톰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3. 조오지는 톰을 무엇이라고 불렀읍니까?
4. 무슨 이유로 셀비는 노예들을 남에게 팔아야 했어요?
5. 노예가 팔려 갈때에 식구가 다 같이 갈 수 있었어요?

6. 엘리자는 왜 도망을 갔읍니까?
7. 도망가는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8. 톰은 누구를 달래놓고 어데로 가야 했어요?
9. 주인셀비는 톰에게 무슨 약속을 했읍니까?
10. 에바의 아버지는 왜 톰한테 고맙게 생각했읍니까?

11. 뉴우오올리안즈에서 톰은 어떻게 살았읍니까?
12. 왜 톰은 다시 다른 주인에게 팔리게 되었어요?
13. 셋째번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읍니까?
14. 왜 톰은 주인에게 두들겨 맞았읍니까?
15. 톰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었읍니까?

16. 톰은 왜 두번째 두들겨 맞았읍니까?
17. 그 때에 조오지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18. 조오지가 톰을 만났읍니까?
19. 톰의 무덤 앞에서 조오지는 무엇을 맹세하였읍니까?
20. 남북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40

VOCABULARY

감격하다		to be deeply moved
아저씨		uncle
엉클 톰스 캐빈		Uncle Tom's Cabin
스토우		(Harriet Beecher) Stowe
줄거리		outline
검둥이		Negro
노예		slave
마음씨		turn of mind, disposition
불행하다	不幸	to be unfortunate
뿔뿔이		separately
흩어지다		to break up
장수		trader, peddler
안타깝다		to be heartbreaking
마침내		finally
도망하다	逃亡	to run away
사형	死刑	death penalty
매달리다		to be hanging
억지로		by force
재산	財産	property
약속	約束	promise
구박을 받다		to suffer abuse
해방	解放	emancipation
통일	統一	unification
남북전쟁	南北戰爭	the Civil War (the U.S.A)
원인	原因	cause

Unit 14

강연을 듣고

오늘은 5 학년 學生이 全部 강당에 모여서 '자원의 利用'에 대한 강연을 듣기로 하였다.

먼저, 校長 先生님께서 이야기하실 분을 소개하셨다.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先生님은, 우리 나라 工業에 대해서 研究하시는 박 先生님이십니다. 박 先生님께서는 오랫동안 美國과 유럽에서도 研究를 하셨읍니다. 오늘은 자원을 利用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아 듣도록 재미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하고는 國民 學校 때부터 中學校까지 동창이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읍니다. 오늘은 바쁘신데도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잘 들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당이 떠나가도록 박수를 하였다.

박 先生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싱긋 웃으

신 다음, 美國과 유럽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利用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나는 요점을 적어 가며, 박 先生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장 감탄하고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美國의 '후우버 댐' 이야기였다.

여러분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世界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美國에 있는 미이드라는 호수인데, 콜로라도江을 막아서 후우버 댐을 만들 때에 생긴 저수지입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약 190 km, 넓이가 약 590 km^2나 됩니다.

이 후우버 댐은 호수가 넓기로 有名할 뿐 아니라, 댐의 높이가 약 220 m로 世界에서 第一 가는 것으로도 有名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工事를 해서 자원을 利用하게 된 것이 아아더라는 어린 少年의 꿈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더욱 놀랄 것입니다.

143

1861년 포오엘이라는 美國의 육군 소령이, 그랜드캐년이라는, 世界에서도 가장 깊고 긴 골짜기를 탐험하였읍니다. 그 때에 아아더는 겨우 여덟 살밖에 안 되었으나, 아저씨인 포

144

오엘 소령의 용감한 탐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읍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생각한 것처럼 콜로라도江을 막아서, 그 물을 사막 지대로 보내, 훌륭한 農場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려고 決心했읍니다.

그 후 아아더는 자라서, 美國에서도 가장 이름난 工業 學校에 入學하였읍니다. 그는 언제나, 공부하면서 1500 m의 깊이를 가진 골짜기를 막아서 댐을 만들어, 콜로라도江 下流(하류)의 사막을 푸른 農場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1914년에, 아아더가 쉰 살이 넘어, 오랫동안 꿈꾸던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었읍니다. 그는 美國의 개척 봉사단의 지도자가 되어, 이 후우버 댐 건설에 종사하게 되었읍니다. 그가 댐을 세우고자 고른 場所는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콜로라도江의 上流인 블랙캐년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을 고른 것은, 江 양쪽에 600 m의 바위가 솟아 있고, 江물에서 겨우 105 m밖에 떨어

져 있지 않아서, 가로막기가 쉽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는 이 場所를 측량하고 세밀히 조사하는 데에 13 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1930년에야 겨우 工事를 始作(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아아더가 少年 時代부터 품었던 꿈은 이제야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는 每日 3500 명의 노무자를 써서, 기초 工事부터 始作했읍니다. 그러나, 아아더는 그 完成을 보지 못하고 不幸히도 다음 해 病으로 일흔 살을 一期로 世上을 떠났읍니다.

그러나, 아아더가 기초를 쌓은 이 댐의 工事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읍니다. 우선 골짜기 밑을 흐르는 江물을 막고, 工事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물을 4 개의 터널로 다른 곳으로 빠지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700만 톤이나 되는 콘크리이트를 퍼부어 댐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이는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보다도 더 무겁고, 댐의 맨 밑의 두께는 약 200 m나 되었읍니다.

댐은 670 m의 깊이를 가진 골짜기 밑에서부터 쌓아올려, 점점 높아질수록 폭이 넓어져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높이는 약 220 m가 되었고, 맨 위의 길이는 약 380 m이며, 두께는 약 14 m가 되었읍니다.

댐을 完成하기 위하여는, 工事가 始作된 후 2 년 동안,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일을 계속해야 했읍니다. 工事가 끝나자 4 개의 터널은 메워지고, 江은 다시 제자리로 흐르게 되었는데, 여기에 생긴 것이 레이크호입니다.

이 댐에서 일으키는 電氣는, 美國 西海岸의 大都市인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하여 영화의 고장인 헐리웃과 같은 美國 南西部의 모든 都市에 밝은 불과 電力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콜로라도江의 홍수를 막고, 넓은 平野에 물도 대어 주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읍니까?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利用하지 못하는 자원이 많이 있읍니다.

147

여러분이 자라면, 이런 자원을 널리 利用해서,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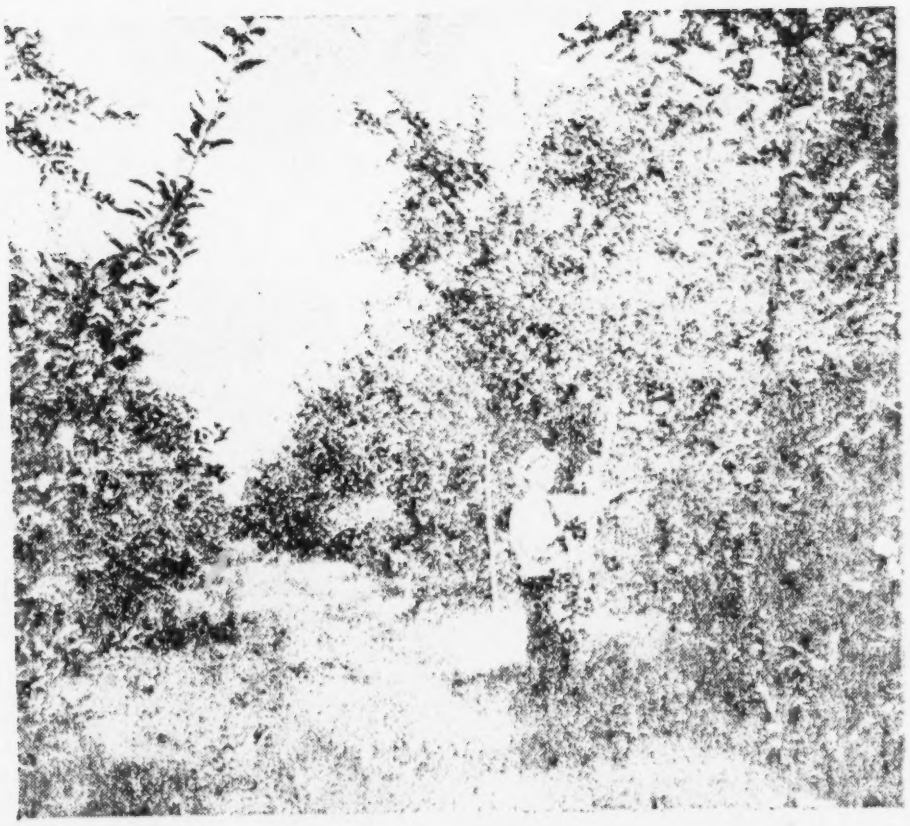
나는 박 先生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점에서 감격했다.

하나는, 아아더 少年이, 여덟 살 때의 꿈을 이루고자 희망을 굽히지 않고 努力한 점이다. 生命이 다할 때까지 인류의 幸福을 위하여 힘쓴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다음은, 댐이 준공되자, 황무지로 버려졌던 넓은 땅에 물을 대어 주고,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를 막으며, 電氣를 일으켜 많은 빛과 열로 사람의 生活에 幸福을 가져온 점이다.

댐을 만드는 데에는 기술과 돈이 必要하다. 그러나, 그 기술과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에는 그 몇 배의 利益을 가져온다.

아아더의 꿈은, 모래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과실이 열게 하였으며, 幸福한 마



을이 서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고,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던 콜로라도江의 물을, 美國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원으로 利用한 것이 얼마나 훌륭하냐!

QUESTIONS

1. 朴先生님하고 校長先生님은 어떻게서로 잘 압니까?
2. 朴先生님은 무엇을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3. 朴先生님의 강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4.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5. 미이드라는 호수는 언제 생긴 저수지입니까?

6. 그 호수의 길이와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7. 후우버 댐의 높이는 세계에서 몇째입니까?
8. 아아더라는 少年의 꿈이 무엇이었읍니까?
9. 아아더의 아저씨가 누굽니까?
10. 포오엘소령은 1861 년에 어데를 탐험했읍니까?

11. 포오엘 소령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읍니까?
12. 아아더는 콜로라도江 下流의사막을 어떻게 하고 싶었읍니까?
13. 1914 년에 아아더가 무엇을 하게 됐읍니까?
14. 아아더는 댐을 세우려고 장소를 어데다 골랐읍니까?
15. 블랙캐년은 지형이 어떻게 생겼읍니까?

16. 그 장소를 측량하고 조사하는데 아아더는 얼마나 시일이 걸렸어요?
17. 아아더는 매일 노무자를 몇명아나 써서 공사를시작했읍니까?
18. 아아더는 공사를 완성시켰읍니까?
19. 이 댐에서 일으키는 전기는 어느 지방에 공급합니까?
20. 댐이 완성한 후에 홍수 문제는 어떻게 됐읍니까?

150

VOCABULARY

강연	講演	lecture
강당	講堂	auditorium
전부	全部	all
이용	利用	utilization
연구하다	研究	to study, research
자원	資源	resources
동창	同窓	alumni
박수하다	拍手	to clap one's hands
감탄하다	感嘆	to admire
저수지	貯水池	reservoir
평방	平方	the square (of a number)
공사	工事	construction work
골짜기		valley, revine
하류	下流	downstream
개척	開拓	reclamation, bringing under cultivation
봉사	奉仕	service
장소	場所	location
측량		survey (by instruments)
품다		to carry in one's bosom
완성	完成	completion
일기	一期	one term (length of time)
방해	妨害	obstruction
공급하다	供給	to supply
거룩하다		to be glorious, holy, sacred
이익	利益	profit

151

Unit 15

월광곡
月光曲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조차 쓸쓸한 저녁, 베에토벤은 싸늘한 달빛을 온몸에 받으면서, 비인의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어디선가 실같이 가는 피아노의 曲調(곡조)가 가벼운 바람결에 그쳤다간 또 들리고, 들렸다간 또 그친다.

베에토벤은 꿈결 같은 音樂(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 오는 곳을 향하여, 自己도 모르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길을 옮기었다. 불도 없는

어두컴컴한 오막살이집에서, 바로 自己가 作曲한 曲調가 아름다웁게 울려 나오는 것이었다.

'삼삼한 오막살이집에 피아노는 웬 것이며, 그것을 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베에토벤은 이상한 感興에 끌리어, 슬그머니 그 집 門을 열고 아무 말도 없이 들어섰다.

主人은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아닌밤중에 아무 말도 없이……"

하고 물었다.

베에토벤은 自己 自身도 모르게 門을 열고 들어서기는 했지마는, 主人이 묻는 소리에 精神을 차리고 四面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작은 燈불이 깜박거릴 뿐이고, 그 앞 主人은 어두컴컴한 속에서 한 신작을 무릎 위에 놓고 궤매고 있었다. 그리고, 한 少女가 등창 밑의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다.

베에토벤은 主人이 묻는 말에는 아무 對答

도 없이, 방 안을 한 번 둘러보고 다시 피아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낡은 피아노 위에는, 악보는 고사하고 종이 조각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치던 그 曲의 악보는 어디 있나요?"

少女는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저는 눈이 멀어서……"

말끝도 채 맺지 못한 그의 목소리는 반은 울음이 섞이었다.

'아아, 장님!'

베에토벤은 놀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어려운 曲調를 배웠읍니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少女는

"배운 일은 없읍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 뒤에 어떤 귀족의 집이 있었읍니다. 그 집 부인이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그저 좋아

서, 曲調 이름도 모르면서 흉내를 내 보았을 뿐이어요."

'아아, 가엾고 놀라운 일이다. 눈먼 이 少女의 이 運命, 이 재주!'

베에토벤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참 가엾은 일입니다. 나도 역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인데, 音樂을 좋아하기는 하오마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少女의 오라버니는, 青年(청년)의 어딘지 모르는 위풍과 불타는 듯한 정열에 이끌려,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걸상을 내놓으며 앉으라고 권했다.

"父母 없이 자라난 저 동생에게는, 이 너른 世上에서, 다만 이 오라비와 다 깨진 피아노만이 위안이랍니다. 웬만만 해도 音樂會에 데리고 가서, 베에토벤 先生님의 피아노 소리라도 한 번 들려 주어, 저 애의 平生 소원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마는……"

"당신네는 그다지도 베에토벤의 音樂을 듣

고 싶어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인지 神인지 모를 大天才(대천재) 베에토벤 先生님이야말로 온 天下가 모두 숭배하는 音樂家가 아닙니까?"

베에토벤은 가만히 피아노 앞으로 가서 그 少女를 일으킨 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 두 不幸한 男妹(남매)를 위하여,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感情을 눌러 가며, 천천히 한 曲調를 치기 시작하였다. 曲調는 조금 전에 바로 그 少女가 치던 것이었다.

커졌다 작아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묘한 피아노 소리는 고요한 좁은 방 안에 퍼져서, 曲을 듣는 두 男妹는 물론, 피아노를 치는 베에토벤 自身도, 이 世上을 떠나 멀리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듯한 이상하고도 신비한 생각에 싸이게 하였다.

초는 점점 녹아 내려서, 까물까물 꺼져 가는 불빛이 세 사람을 비춰 준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듣고 있던 少

女는 별안간 베에토벤의 옷자락을 잡으며 부르짖었다.

"先生님은 베에토벤 先生님이 아니십니까?"

베에토벤은 少女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예, 내가 바로 베에토벤이오."

이 말을 들은 男妹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한 끝에, 한참 동안 느껴 울었다.

"先生님, 이 불쌍한 제 동생을 위하여 한 曲調만 더 들려 주실 수 없겠읍니까?"

157

調에 취하여, 멀리 달나라를 헤매는 듯 이상스러운 꿈 속에 싸이게 하였다. 그러다가 曲調는 별안간 변하여, 베에토벤의 두 손은 사나운 비바람이 내리치는 듯, 불꽃이 튀는 듯 빨리 뛰기 시작하자, 마치 山이 울며 天地가 흔들리는 듯했다. 이리하여, 황홀하고 열광적인 曲調는 감격과 榮光(영광)을 두 男妹의 가슴 속에 가득히 담아 붓는 것이었다.

두 男妹가 황홀한 音樂에 취한 꿈이 채 깨기도 전에, 베에토벤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새도록, 自己가 친 曲調를 그대로 베껴 놓으니, 이것이 萬古(만고)에 이름 높은 月光曲이다.

오라버니는 애원하였다.

베에토벤이 다시 피아노를 향하여 앉았을 때, 깜박거리던 촛불이, 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탁 꺼졌다. 마침 휘영청 밝은 달빛이 흘러들어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온 방은 감격과 신비 속에 싸여 침묵을 지킬 뿐……

들창을 활짝 열어젖뜨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은구슬을 뿌려 놓은 듯이 반짝거리고, 한복판을 흐르는 한 줄기의 은하수가 환한 달밤이었다.

한참 동안 황홀하게 바라보던 베에토벤은 피아노 위에 손을 올려 놓자, 마음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정열과 感興을 曲調로 옮겨 천천히 치기 시작하였다.

황홀하고도 신비한 이 광경 속에서, 두 男妹는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숨도 크게 못 쉬며 귀를 기울였다. 달 속의 女人이 흰 비단 치마를 차면서 춤추는 듯한, 아름답고도 구슬픈 曲

QUESTIONS

1. 베에토벤은 달밤에 무엇을 하고있었어요?
2. 베에토벤은 자기도 모르게 어데를 향하여 걸어갔읍니까?
3. 오막살이집에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왔읍니까?
4. 베에토벤은 왜 그 오막살이집에 들어갔읍니까?
5. 오막살이집 안에는 어떤 피아노가 있었읍니까?

6. 집안에서 주인은 무엇을하고 少女는 무엇을 하고있었어요?
7. 베에토벤이 少女한테 무엇이라고 물었읍니까?
8. 少女는 왜 얼굴을 붉혔을까요?
9. 그 少女는 어떻게 그 곡조를 배웠다고 했어요?
10. 그 少女의 平生소원이 무엇이었읍니까?

11. 왜 온 天下가 모두 베에토벤을 숭배한다고 했어요?
12. 베에토벤은 누구를 위하여 피아노를 치기시작했읍니까?
13. 그때 방안에는 무슨 불이 켜있었읍니까?
14. 少女는 어떻게 그분이 '베에토벤인줄 알았을까요?
15. 그 曲을 듣고 오라버니는 무엇을 애원했읍니까?

16. 베에토벤이 다시 피아노에 앉았을때 촛불이 어떻게 됐어요?
17. 피아노를 치기 전에 베에토벤이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18. 베에토벤은 어떻게 그 집을 떠났읍니까?
19. 두 男妹를 위하여 친 曲調가 무엇이라는 曲이었읍니까?
20. 그 曲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VOCABULARY

거닐다		to take a walk
곡조	曲調	music
꿈결		dream state
은은하다		to be sonorous
오막살이		grass hut
작곡하다		to compose
가냘프다		to be feeble, thin, slender
감흥		interest, fun; inspiration
슬그머니 들어서다		to steal in, enter secretly
아닌밤중		in the dead of night
정신을차리다		to pay attention, collect one's mind
둘러보다		to look around
깜박거리다		to flicker
운명	運命	fate
음악회		concert
평생	平生	one's whole life
신	神	god
천재	天才	genius
천하	天下	the world
남매	男妹	brother and sister
감정	感情	emotion, feeling
천지	天地	heaven and earth
영광	榮光	glory
만고	萬古	eternity
월광곡	月光曲	moonlight sonata

Unit 16

불 국 사

칠월 십 이일(七月十二日), 아침 첫차로 경주(慶州)를 떠나 불국사로 향(向)했다. 떠날 무렵에 봉황대에 올랐건만, 잔뜩 찌푸린 날씨에 짙은 안개는 내 눈까지 흐리게 하고 말았다. 베를 널어 놓은 듯한 희미한 강 줄기며, 몽롱한 무덤의 봉우리, 쓰러져 가는 초가집 추녀가 모두 눈물겹다. 장난감 같은 조그만 기차는, 반 시간이 못 되어 불국사 역(驛)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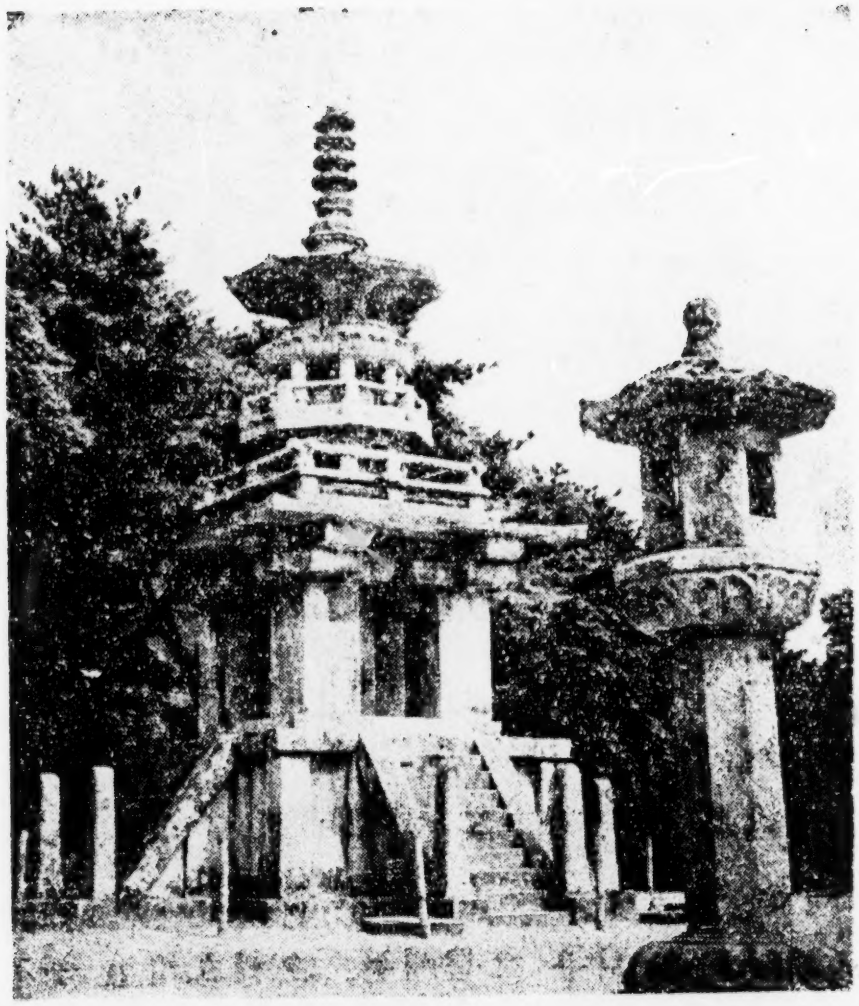
지 실어다 주고,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自動車)는 십 리(十里) 길을 단숨에 달려서, 불국사에 닿았다.

뒤로 토함산을 등지고, 왼쪽으로 울창한 송림(松林)을 끌며, 앞으로 광활한 평야(平野)를 내다보는 절의 위치부터 내 눈에도 범상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돌 층층대를 쳐다볼 제, 그 굉장한 규모와 섬세한 솜씨에 눈이 어렸다. 동쪽과 서쪽으로 갈리어 위 아래로 각각 둘씩이니 전부 네 개인데, 한 개의 층층대가 대개 십 칠팔 계단이요, 길이는 십 칠팔 미터이다. 층층대 양 쪽 가에 놓인 것과 가운데 뻗친 것은 돌 한 개로 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인력(人力)을 들인 것을 짐작할 것이요, 오늘날 돌로 지은 대건축물(大建築物)에도 이렇듯이 대패로 민 듯한 돌을 못 보았다 하면, 얼마나 그 때 사람들이 돌을 곱게 다룬 것인가를 깨달을 것이다. 돌 층층대라고는 하지만, 아래 위가 연락되는 곳마다, 요새 말로

네모가 난 발코니로 되고 그 밑은 홍예로 되었는데, 인도자의 설명(說明)을 들으면, 옛날에는 오늘날의 잔디밭 자리에 깊은 연못을 팠고, 홍예 밑으로 맑은 물이 흘러서 그림배가 드나들었다 하니, 돌 층층대를 다리라 한 옛 이름의 까닭을 터득할 것이다.

층층대 상하(上下)에는, 손잡이 돌이 우뚝우뚝 서고, 쇠사슬인지 뚫어서 꿴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귀인(貴人)이 이 절을 찾을 때에는, 저 편 못가에서 내려 그림배를 타고 들어와, 다시 보교를 타고 이 층층대를 지나, 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넓은 못에는 연꽃이 만발(滿發)했는데, 다리 밑으로 드나드는 맑은 흐름에는, 으리으리한 누각과 석불의 그림자가 용의 모양을 그리고, 그 위로 소리 없이 떠나가는 그림배! 나는 당년(當年)의 광경(光景)을 머리 속에 그리며, 스스로 황홀하였다.

이 돌 층층대를 거쳐, 문루를 지나 서니,



유명(有名)한 다보탑과 석가탑이 눈 앞에 나타난다. 이 두 탑은 물론 돌로 된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만져 보거나, 두드려 보거나, 분명(分明)히 돌이다. 그러나, 석가탑보다도 다보탑이 돌로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하여도

눈을 의심(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한 나무가 아니요, 물씬물씬한 밀가루 반죽이 아닌, 육중하고 단단한 돌을 가지고서, 저다지도 곱고 공교롭게 잔손질을 할 수 있으랴! 만일 그 탑을 만든 재료(材料)가 정말 돌이라면, 신라 사람은 돌을 돌같이 쓰지 않고, 마치 콩고물이나 팥고물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주무르고 하는 재주를 손가락 끝에 가졌던 것이리라.

탑의 네 면에는, 자그마한 예쁜 돌 층층대가 있고, 그 층층대를 올라서니, 가운데는 웃층을 떠받치는 중심(中心) 기둥이 있고, 네 귀에도 병풍을 펼쳐 놓은 듯한 돌 기둥이 또한 섰는데, 그 기둥과 두 층층대의 석반을 받든 어름에는, 나무로도 오히려 깎아 내기가 어려울 만한 소로가 튼튼하고도 아름답게 손바닥을 벌리었다. 지붕 위에, 제이 층(第二層)의 네모난 돌 난간이 둘러 쟁반 같은 이 층 지붕을 받들었고, 그 위로 팔각형 돌 난간

167

과 진기한 꽃잎 모양을 수놓은 듯한 돌 쟁반이 팔각형의 난간을 받들었다. 바람과 비에 시달린 지 천 여 년(千餘年)을 지난 오늘에도,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고 이지러지지도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당대(當代)의 건축술(建築術)도 또한 놀랄 만한 것이 아니냐?

석가탑은 다보탑 서쪽에 있는데, 다보탑의 혼란한 잔손질과는 딴판으로 솜씨가 매우 간결하나마, 또한 정중한 자태(姿態)를 잃지 않았다. 가령, 다보탑을 능라와 주옥으로 활씬 꾸민 색시에 비긴다면, 석가탑은 수수하게 차리고도 예쁜 촌색시라 할까? 높이 약 팔 미터, 역시 삼 층인데, 각 층마다 수려한 돌 병풍을 두르고, 병풍 네 귀에 병풍과 한데 얼려 놓은 기둥이 있었다. 설명하는 이의 말을 듣건대, 이 탑은 한 층마다 돌 하나로 되었다 하니, 그 웅장(雄壯)하고 거창한 규모(規模)가 놀랄 만하다.

168

다보탑과 석가탑을 무한(無限)한 감탄과 감개를 가지고 보다가, 대웅전을 들여다보니, 정면(正面)에 엄연(嚴然)히 삼위불의 입상이 서 있는데, 보통(普通) 부처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마는, 신라 당시(當時)의 유물(遺物)은 아니고 영조 때에 개축(改築)할 제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하며, 다만 경탄할 것은 개축할 때 천장과 벽(壁)에 올린 휘황찬란한 단청이 이백 여 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조금도 빛이 변(變)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정한 시간이 지나니 갈 길이 바쁜 관계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석굴암으로 향하여 또 다시 걸음을 옮기었다.

QUESTIONS

1. 불국사 역에서 불국사까지 멀리나 됩니까?
2. 불국사 절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3. 불국사에서는 누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4. 옛날에는 돌 층층대를 왜 다리라고 했을까요?
5. 돌 층층대의 솜씨가 어땠읍니까?

6. 층층대에는 무슨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읍니까?
7. 옛날에 귀인이 이 절에 어떻게 찾아왔다고 합니까?
8. 그림배는 언제 무엇을 하는데 사용됐읍니까?
9. 다보탑과 석가탑이 무엇으로 되었읍니까?
10. 다보탑과 석가탑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1. 다보탑이 돌로 되었다는 사실이 왜 눈을 의심할정도이었어요?
12. 신라사람들의 돌을 쓰는 재주가 어땠읍니까?
13. 다보탑의 네면에는 층층대가 몇이 있읍니까?
14. 다보탑은 몇년전에 지었읍니까?
15. 그동안 바람과 비에 피해를 많이 받았읍니까?

16. 다보탑의 솜씨가 어떻습니까?
17. 석가탑의 솜씨는 어떻다고 할수있읍니까?
18. 다보탑과 석가탑을 어느 여성에 비할수있다고 했어요?
19. 석가탑은 한층마다 돌이 몇개로 되었읍니까?
20. 대웅전의 삼위불의 입상은 언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VOCABULARY

향하다	向	to leave for
무렵		the time (when), around the time
잔뜩		to the fullest
찌푸리다		to get cloudy; to frown
질다		to be thick
베		hemp cloth
몽롱하다		to be vague, dim, obscure
무덤		tomb
초가집		straw-thatched house
추녀		protruding corners of Korean eaves
눈물겹다		to be heartrending
단숨에		without stopping for breath
등지다		to lean against
울창하다		to be luxuriant, grown thick
송림	松林	pine forest
광활하다		to be vast
평야	平野	plain, field
범상하다	凡常	to be common
층층대		stairway
규모	規模	scale, scope
솜씨		skill
어리다		(tears) gather in eyes
건축물	建築物	structure, building
대패		plane (equipment)
밀다		to level off

Unit 17

傳來(전래) 공업을 찾아

우리는, 항라 깨끼적삼에 태극부채를 들고 화문석에 얌전히 앉아 푸른 대발을 바라보는 女人을 그린 한 폭의 동양화를 볼 때가 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의 생활과 어울리고, 아담하면서도 親近(친근)한 맛이 감도는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우리의 긴 역사는 가지가지의 생활을 엮어 내면서 여러 가지의 文化를 이룩하여 왔는데, 이제는 밀물처럼 몰려드는 外來 文化에 쫓기어 차차 옛 자취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둘레에는, 우리만이 지니고 있는 멋과 아름다움을 풍기는 傳來의 공예품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공예품들은, 독특하고 傳統的(전통적)인 맛이, 색다른 흥취를 불러일으켜, 외국에서도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다.

전라 남도의 光州市에서 北東으로 20 *km*쯤

가면, 죽세공으로 이름 높은 담양읍에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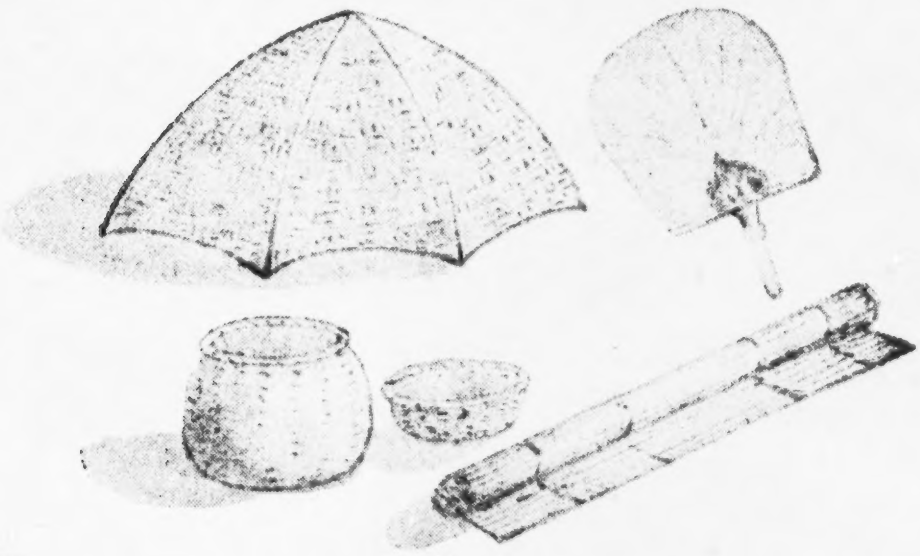
이 곳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에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쓰이는 바구니, 발을 비롯하여 삿갓, 참빗, 부채 들이 많이 生産되고 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참빗이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활개를 치고, 퍼어머넨트 머리가 流行하기 때문에, 참빗으로 곱게 빗은 여자의 머리는 두메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처럼 차차 줄어지는 것도 있지만, 바구니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 이것도 비닐이나 싸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으나, 아직 대로 만든 것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

다. 장바구니처럼 널리 쓰이는 것도 있지만, 꽃바구니처럼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것도 있어, 그 종류가 수십을 헤아린다. 수년 전에 美國의 뉴우요오크市에서 열린 세계 산업 박람회에서는, 꽃바구니와, 대껍질로 만든 바구니가 외국인들의 人氣를 모았다. 이 바구니의 모양을 본떠 만든 백이 西洋 사람들의 구미를 돋구어,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 시장에 선을 보인 우리의 죽세공품을 더욱 海外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기



계를 이용하여 大量(대량)으로 生産하고, 그에 따른 기술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家庭에는 지금도 예로부터 써 오던 자개 家具(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옷장을 비롯하여 경대와 탁자가 있고, 또 꽃병도 있다. 검거나 붉은 바탕에, 희고 파릇한 자개로 박은 여러 가지 그림이나 무늬는 참으로 산뜻하고도 화려하다.

때로는 한 떨기의 매화와 새를 아로새긴 것도 있고, 때로는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한 사슴의 한 쌍을 그린 것도 있어, 東洋的인 신비한 멋을 자아내게 하여, 곧잘 외국 손님의 시선을 끌게 한다.

자개 공예는 忠武市에서 발달되었는데, 그것은 원료를 구하기 쉽고, 또 예로부터 나라에서 그러한 원료로 家具를 만드는 것을 장려했기 때문인 모양이다.

이 자개 공예는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솜씨인데, 조용하고 차분한 東洋的인 멋 속에 우아하고도 화려한 맛을 보여 준다. 재료가 비싸고 손이 많이 가서 과거에는 부유한 사람들에만 愛用되던 것이 차차 일반에게도 널리 사용되자, 서울을 비롯한 큰 도시의 商店(상점)의 진열장을 장식하게 되고, 선물 가게에도 많이 나돌게 되어, 그 제작도 본고장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忠武市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겨우 1할 정도를 手工業에 의하여 만들어 내는 형편이다.

이 공예품은 앞길이 유망할 뿐 아니라 海外에서도 환영을 받기 때문에, 大量 生産을 해야 할 형편이다. 그리하여, 그 제작법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전에는 자개 제품이라 하면, 칠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나라 것만 써 왔고, 木材도 부드러운 은행나무, 피나무, 홍송, 홰나무 들을 썼는데, 지금은 칠은 캐슈우라는 代用 칠을 쓰기도 하고, 木材는 흔히 합판을 많이 쓴다고 하니, 산뜻한 맛은 있으나 육중한 옛 맛은 찾기에 힘들다.

자개는 제주도에서 나는 소라나 청패를 많이 쓰지만, 高級品인 경우에는 밤이면 빛을 내는 야광패, 五色 빛깔이 찬란한 멕시코패들을 수입해서 쓴다고 한다.

앞으로 이 산업을 발달시켜 세계 무대로 벋어 나가게 하려면, 자개 공예의 生命이라고 할 수 있는 무늬와 그림을 오늘날의 느낌에 맞도록 고안하고, 바탕의 빛깔도 무늬나 그림과 잘 어울리도록 더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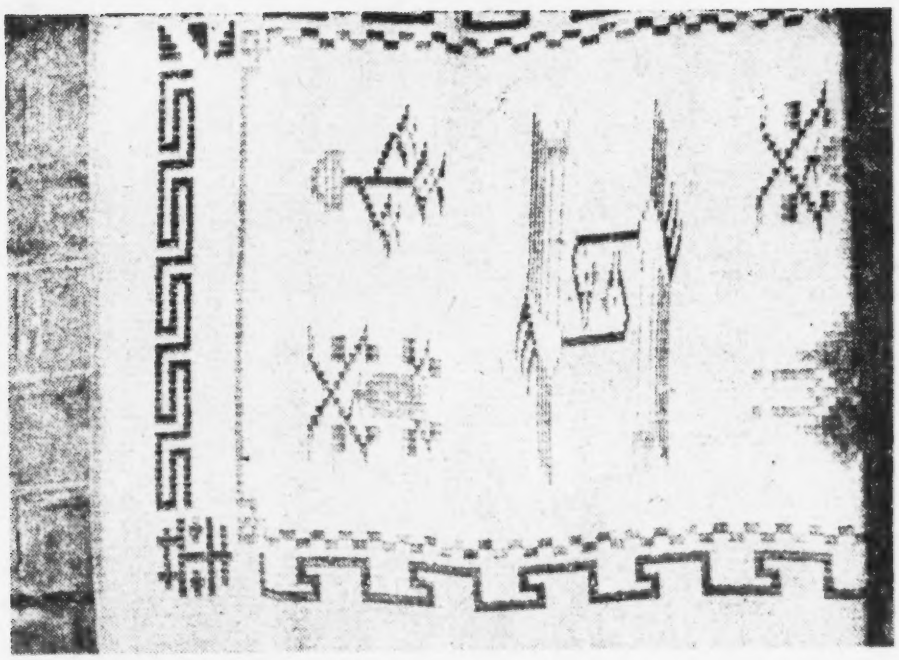
177

江華島(강화도)는 島民들이 부지런하고 生活力이 강하여, 제 힘으로 생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곳에서 生産되는 화문석은 매년 그 판로가 늘어나고 있으나, 필요한 만큼 충분히 生産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것을 生産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도 있고, 워낙 손질이 많이 가는 手工業이기 때문이다. 폭이 약 2 m에 길이가 약 3 m짜리 화문석 한 장을 짜려면 세 사람이 이레나 걸리는데, 고드랫돌을 번갈아 당기는 횟수만 해도 20만 번이 넘는다고 한다.

화문석의 본고장은 江華島에 있는 陽五里라는 곳인데, 이 마을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달가닥 달가닥' 하고 화문석 매는 고드랫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옛날에는 돌을 썼기 때문에 이 이름이 남았겠지만, 지금은 이름과는 달리 쇠로 된 것을 쓰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조상 때부터 화문석을 매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집집마



다 틀을 놓고 있으며, 누구나가 다 맬 줄 아는 기술자라고 한다.

화문석의 재료는 왕골인데,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고장이라야 잘 자란다는 이 식물은, 江華島 것이 빛도 희고 길이도 길어 품질이 매우 좋다고 한다.

화문석은 왕골에 무늬를 놓아 만드는 것이므로 왕골을 염색해야 하는데, 팔팔 끓는 물에, 빨강, 파랑, 노랑, 깜장, 자주 들의 물을 들인다. 그 물을 들이는 데에도, 종이가 아니

고 왕골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싸우던 맥아더 원수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선물로 받아 간 화문석이 그곳 사람들에게 절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 밖에도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韓山의 모시, 安東의 안동포, 또는 全州의 부채, 南原의 木器(목기), 安城의 유기 들은 아직도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차차 스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몇 가지의 공예품은 오늘날에 알맞은 수법과 멋을 갖추어 海外로 진출하는 것도 있으니, 이 공예품 제작은 매우 유망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80

QUESTIONS

1. 무엇을 그린 동양화가 우리의생활과 어울립니까?
2. 무엇이 외래 문화에 쫓기어 자취를 잃게 되었어요?
3. 한국의 공예품들이 왜 외국에서 사랑을 받고있어요?
4. 전라 남도의 담양읍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5. 여자들이 참빗을 안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 뉴우요오크 세계산업 박람회에서는 어느한국 물건이 인기를 모았어요?
7. 죽세공품을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생산할수있을까요?
8. 자개 가구에는 어떤것이 있읍니까?
9. 자개 공예는 왜 충무시에서 발달되었어요?
10. 자개 공예는 과거에 어떤사람들에만 애용되었어요?

11. 왜 과거에 일부의 사람들만 애용했어요?
12. 요새는 어떻습니까?
13. 자개 공예의 제작법이 왜 달라져야했을까요?
14. 자개제품에는 무슨 목재를 썼읍니까?
15. 강화도의 도민은 어떠한사람들입니까?

16. 강화도에서는 무엇이 생산됩니까?
17. 강화도 양오리사람들은 무슨 기술자입니까?
18. 맥아더 원수가 받은선물이 무엇이었으며 평이 어땠읍니까?
19. 공예품생산이 수공업이기때문에 무슨 단점이있읍니까?
20. 안동하고 남원에서는 무슨 공예품이 생산됩니까?

VOCABULARY

전래	傳来	handing-down, transmitting to succeeding generations
항라	亢羅	sheer silk
깨끼		early summer outfit
적삼		unlined summer jacket
태극	太極	the Great Absolute
부채		fan
화문석	花紋	mat woven with flower designs
얌전하다		to be modest, mild and gentle
대발		woven bamboo curtain
바라보다		to look at
여인	女人	woman
폭		scroll, strip of cloth
어울리다		to be becoming
아담하다		to be elegant
친근하다	親近	to be intimate
감돌다		to keep flickering
자아내다		to evoke
엮다		to weave
이룩하다		to accomplish
밀물		tide
외래문화	外来文化	foreign culture
쫓기다		to get driven out
자취		trace
둘레		circumference
지니다		to preserve, carry (with one)

183

우사 신규식 선생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 많지만
이분처럼 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분은 드물다

Unit 18

세종 임금

세종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 우리 나라 역대 임금 중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文化) 발전(發展)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종 임금은, 지금부터 560 년쯤 전에, 근세조선(近世朝鮮) 태종 임금의 세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셔서, 나이 22 살에 제 4 대 임금이 되신 분입니다. 원래(元來)는 맏아들이 세자(世子)가 되어 왕위(王位)를 잇는 법이었읍니다마는, 세째 아드님의 인품(人品)과 학식(學識)이 너무나 뛰어났으므로, 이 분이 세자가 되어서, 왕위를 이으신 것입니다.

세종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은 한글을 만들어 내신 일이겠읍니다.

그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우리의 글자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중국(中國)의 글자인 한자(漢字)를 빌어다가, 그 소리를 따서 우리말을 적었읍니다. 이것을 이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두는 우리말을 그 소리대로 적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자는 워낙 수효가 많고 까다로와서, 배우기에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바르게 적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였읍니다. 세종께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한글을 만들어 내시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우선 신 숙주, 성 삼문, 정 인지 같은, 그 당시 나라 안의 훌륭한 여러 학자(學者)들에게 우리 글자를 연구(研究)하여 만들도록 분부하시는 한편, 사자(使者)를 멀리 중국에까지 보내시어, 그 곳 학자의 의견(意見)까지 참고로 듣게 하였읍니다. 세종께서

는 몸소 연구하시느라고 눈병까지 앓으셨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오랜 세월(歲月)을 보낸 후에 비로소 한글은 만들어졌읍니다. 바로 세종 25년의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는 세종께서는 한글을 세상에 빨리 발표(發表)하시려고 서두르시지 아니하셨읍니다. 궁(宮) 안에다 언문청이라는 관청을 두고, 새로 만든 글자가 실지(實地)로 사용(使用)하는 데 적당한가 어떤가를 따지어 보도록 하시었읍니다. 이런 기간(期間)이 3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처음에 뜻한 대로 우리말을 바르게 적을 수 있고, 백성(百姓)들이 배우기도 아주 쉽다는 자신(自信)이 생기시자,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여, 세종 28 년에 비로소 온 나라 안에 이것을 펴시었읍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세계(世界) 어느 나라의

글자보다도 가장 바르고, 아름답고,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글자를 우리 나라 백성들은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反對)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까닭은, 오랫동안 중국만 섬기던 까닭으로 중국에 없는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과, 이것을 쓰면 한문(漢文)을 배우는 사람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자기 나라 말에 맞는 자기 나라 글을 만들어 쓰자는데, 남의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반대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러한 반대도, 세종께서는 덮어놓고 물리치지 않으시었읍니다. 한글이 얼마나 좋은 글자이며, 이것을 만들어 쓰는 것이 얼마나 필요(必要)한 일인가를 차근차근 일러 주셨읍니다.

우리의 글인 한글이 완성(完成)되자, 세종

께서는 이것을 실생활(實生活)에 이용(利用)하는 데에도 크게 힘을 쓰시었읍니다. 신하를 시켜 한글로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를 만들게 하시었고,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노래를 손수 지으시었읍니다.

그 밖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많은 글을 우리말로 옮겨 놓으시었고, 세종께서 신하들에게 내리시는 글도 한글로 쓰시었읍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분의 뛰어난 학식과 인품의 힘도 컸겠지만, 또한 집현전 학자들의 힘도 적지 않았읍니다.

이 집현전이라는 것은 세종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3 년 만에 만드신 것인데, 여러 가지 일에 전문적인 지식(知識)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모은 곳입니다. 무슨 알아보실 것이 있을 적마다, 세종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질문(質問)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한글을 만드신 일뿐만이 아니

라, 책을 만들어 내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인쇄술과 활자(活字)를 개량(改良)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시었읍니다. 그리고, 개량된 인쇄술로 많은 책을 박아 내시었읍니다. 저 유명(有名)한 고려사 같은 역사책도 이 때에 나온 책입니다.

또, 세종께서는 과학적인 면에도 많은 힘을 쓰시었읍니다. '대소간의' '일성정시의'와 같은 천문 관측 기계가 이 때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것들이었읍니다.

또,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를 만들어, 서울 거리에 설치하여 백성들이 시간(時間)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자격루라는 물시계를 손수 꾸미어 만들게 하시기도 하였읍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가를 알아보는 우량계도 만드시었읍니다. 흔히 우량을 처음으로 잰 것은 이탈리아 사람 카스텔리가 서기 1639 년에 한 것이라고 하는데, 세종께서 우량계를 만

드신 것은 이보다 200 년이나 앞선 셈이 됩니다.

세종께서는, 그 당시까지 배척을 받았던 불교(佛敎)를 위하여도 힘을 쓰시었고, 또 아악을 정리하여, 오늘날 서양 음악(音樂)에 비기어 보아도 훌륭한 예술의 발전을 보게 하시었읍니다.

세종께서 문화적인 일에 힘을 많이 기울이신 것은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였읍니다.

김 종서라는 장군(將軍)이, 북쪽 국경을 든든히 지키기 위하여, 성(城)을 쌓자고 주장(主張)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여, 김 종서를 죄인으로 벌하자고 야단들이었읍니다. 이 때 세종께서는,

"내가 있더라도 종서가 없었으면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요, 또 종서가 있더라도 내가 없으면 이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고 종서가 있는데, 아니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고 하시며, 여러 신하들의 의견(意見)을 물리치시었읍니다. 이 성이 완성되자, 그 후 우리 땅에 쳐들어오려는 여진족을 물리치는 데 여간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읍니다.

세종께서는 임금으로 32 년 동안이나 계시다가 54 세 때 돌아가시었읍니다.

세종 임금을 모신 산소는 영릉이라고 하며, 지금 경기도 여주군에 있읍니다.

QUESTIONS

1. 세종 임금이라면 어떤분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2. 그 분은 맏아들이 아니었는데 무슨 이유로 세자가 되었어요?
3. 이두라고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4. 한국에서 왜 이두를 써야 했읍니까?
5. 이두의 결점이 무엇이었읍니까?

6. 세종 임금은 우리 글자를 만들도록 어느 학자에게 분부하셨어요?
7. 사자를 어데 보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읍니까?
8. 세종 임금은 왜 눈병을 앓으셨어요?
9. 한글이 단시일에 만들어졌읍니까?
10. 세종은 왜 한글을 빨리 세상에 발표하지 아니하셨나요?

11. 언문청은 무엇을 하는데이고 어데 있었어요?
12. 한글은 언문청에서 몇년을 연구한후 무슨 명칭으로 발표했어요?
13. 한글을 반대한 학자는 무슨 견지에서 그랬읍니까?
14. 세종 임금은 반대자에게 무슨 태도를 취했읍니까?
15. 그 당시에 한글로 무슨 노래를 만들었어요?

16. 집현전은 누가 언제 만든것입니까?
17. 집현전에서 세종임금이 무엇을 하셨어요?
18. 출판방면에 세종임금은 무슨 공적이 있읍니까?
19. 해시계와 물시계는 어떠한 것이었읍니까?
20 우량계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했읍니까?

192

VOCABULARY

세종 임금	世宗	King Sejong
역대	歷代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문화	文化	culture
발전	發展	development
근세	近世	recent era
탄생하다	誕生	birth
세자	世子	the Crown Prince
왕위	王位	the throne (kings)
잇다		to connect, succeed
인품	人品	personal dignity
학식	学識	scholarly attainments
뛰어나다		to be outstanding
원낙		originally
수효	数爻	number
까다롭다		to be troublesome, hypercritical
물리치다		to refuse, reject, beat off
분부하다	分付	to order
사자	使者	envoy
참고로	參考	for reference
고비		peak
소홀히		negligently
서두르다		to make haste with
언문		the Korean script
실지로 행하다	実地	to carry into practice
우량계		rain gauge

193

Unit 19

북한의 실정

독재 정치

공산주의는, 본래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심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 제도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이를 폭력으로써 두들겨 없애야 한다는 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공산 국가에서는 노동자, 농민, 즉 빈곤에 쪼들린 무산자를 잘 살도록 하는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공산 국가에서는 정말로 그와 같은 무산자를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 된다.

공산 국가는 철저한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음은 앞에서도 말하였다. 즉, 공산당의 한 두목이 정권(政權)을 잡고 공산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가 공산 독재 정치이다. 거기에서는 독재자에 의한 절대의 명령이 있고, 온 국민은 무조건으로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만이 있다. 그리고, 그 명령 계통은 오직 공산당을 통할 뿐이다. 그래서, 이를 일당 독재라 한다.

지금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북한에서는 이러한 일당

독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허울 좋게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들에게도 민주 국가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있고, 또 헌법에는 나라의 주권(主權)이 인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요, 실상은 노동당이란 이름의 공산당이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들도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겉만으로라도 그것을 가장해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본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이 국회를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국회 의원으로서 올바로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선거되기 위하여는 그 선거 방법이 공정해야 되고, 또 여러 정당에서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입후보를 하게 하고, 투표하는 국민이 이 많은 입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의원을 선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 북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산당에 의한 독재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산 북한에서는 정당은 오직 노동당이란 이름의 공산당이 있을 뿐이고, 따라서 의원의 입후보자는 노동당에서 추천하는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투표하는 국민은 이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한 찬성 또

는 반대를 투표지에 표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산 북한에서는 투표할 때, 흰 함(函)과 검은 함을 투표함이라고 내놓고, 찬성하는 사람은 흰 함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은 함에 투표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이런 투표 방법이 얼마나 비민주적인가는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일이다. 지금은 투표함 하나만 내놓고 투표하는 방법으로 바꿨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한 찬성 반대만을 묻는 투표를 하고 있으니, 비민주주의적인 선거 방법임에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입법과 사법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이룩된 최고 인민회의가 제대로 입법부(立法府)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한다면 입법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노동당의 일당 독재 아래에서는 역시 입법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의 정당인 노동당의 우두머리에서 지령(指令)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의사(議事)를 진행할 때에는 대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해서 토론하는 것도 아니며, 또 늘 회의를 여는 것도 아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며칠 동안 회의를

열어 독재자가 마련한 법률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일을 할 따름이다. 만약 노동당의 두목이 지령한 점에 반대의 의견을 낸다면 그는 반동 분자라고 하여 탄압을 받고, 숙청(肅淸)을 당하고 만다. 그러므로, 의회는 언제나 만장 일치라는 모습으로 되고, 여러 날 걸릴 것도 없이 한 2,3 일이면 끝나고 만다.

그리고, 일단 제정된 법률을 실시하는 데에는 공정을 잃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할 사법부(司法府)의 하는 일도 일당 독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래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을 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가 없고, 재판을 하지 않고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두머리 된 자들이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마음대로 잡아다가 형벌을 준다. 그러기에 요즈음에는 사법성(司法省)이란 것도 없애 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재판도 법정(法廷)에서 엄숙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대중 앞에서 공산당원들이 떠들어대는 중에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북한에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삼권 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은 찾아볼 길도 없으며, 공산당의 일당 독재로써만 백성을 다스리는 혹독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경제 사정과 아울러 일반 사회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경제 사정

공산주의는 본디 자본가의 착취를 없앤다고 해 놓고, 실지로는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이 자본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우리 동포의 사유 재산을 모조리 몰수(沒收)하여 그것을 국유 또는 단체 소유로 하고 말았다. 공장, 광산, 철도는 물론이요, 농토나 산림도 모조리 국유화해 버렸다. 그리하여, 북한의 모든 국민은 완전히 공산 독재자의 머슴이 되고 만 것이다.

공산 국가에서는 국민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럴듯한 그들대로의 이론이 있다. 즉,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본가가 생기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

와 같은 허울 좋은 이론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공산당 간부는 자본가가 되고, 국민은 모조리 그들의 노예로 만들고 만 것이다.

농민의 사정은 더욱 말이 아니다. 모든 농민은 집단농장에서 일군으로 일을 해서 애써 농사를 지어 내면, 그 곡식을 전부 공출해 내고 나서 양곡의 배급을 받는 것이다. 그 배급이나마 한 식구가 먹고 살 만한 분량이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공산당 우두머리에 있는 자들은 일반 국민과는 배급소마저 달리하여 아주 좋은 것만을 골라서 넉넉하게, 또한 싼 값으로 배급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일반 사회 생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의(自意)에서 나온 일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의에서가 아니라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이름난 것은 천리마(千里馬) 운동이다. 이는 하루에 천릿길을 달리는 말처럼 고되게 일을 하라는 말로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서로 경쟁을 시키는 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사는 노동자나 농민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삯을 받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감독만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權益)을 위한다는 노동 조합이 있기는 하나, 사실은 공산당의 앞잡이로서 노동자를 더욱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무산자를 위하는 정치를 한다는 공산 북한은 사실은 무산자인 국민 대중의 희생을 최대한으로 강요하여, 여기서 나온 이익을 독재자를 위시한 공산당 간부들이 독차지하는 정치를 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QUESTIONS

1. 공산주의는 본래 어데서 시작한 것입니까?
2. 공산독재 정치의 내막이 무엇입니까?
3. 왜 밀당 독재라고 합니까?
4. 북한에서는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5. 북한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전혀 안 씁니까?

6.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 의원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7. 북한에는 정당이 몇이 있읍니까?
8. 선거때에 흰 함과 검은 함을 무엇에 사용했읍니까?
9. 그 제도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할수있읍니까?
10. 북한의 인민회의는 어떻게 법률안을 통과시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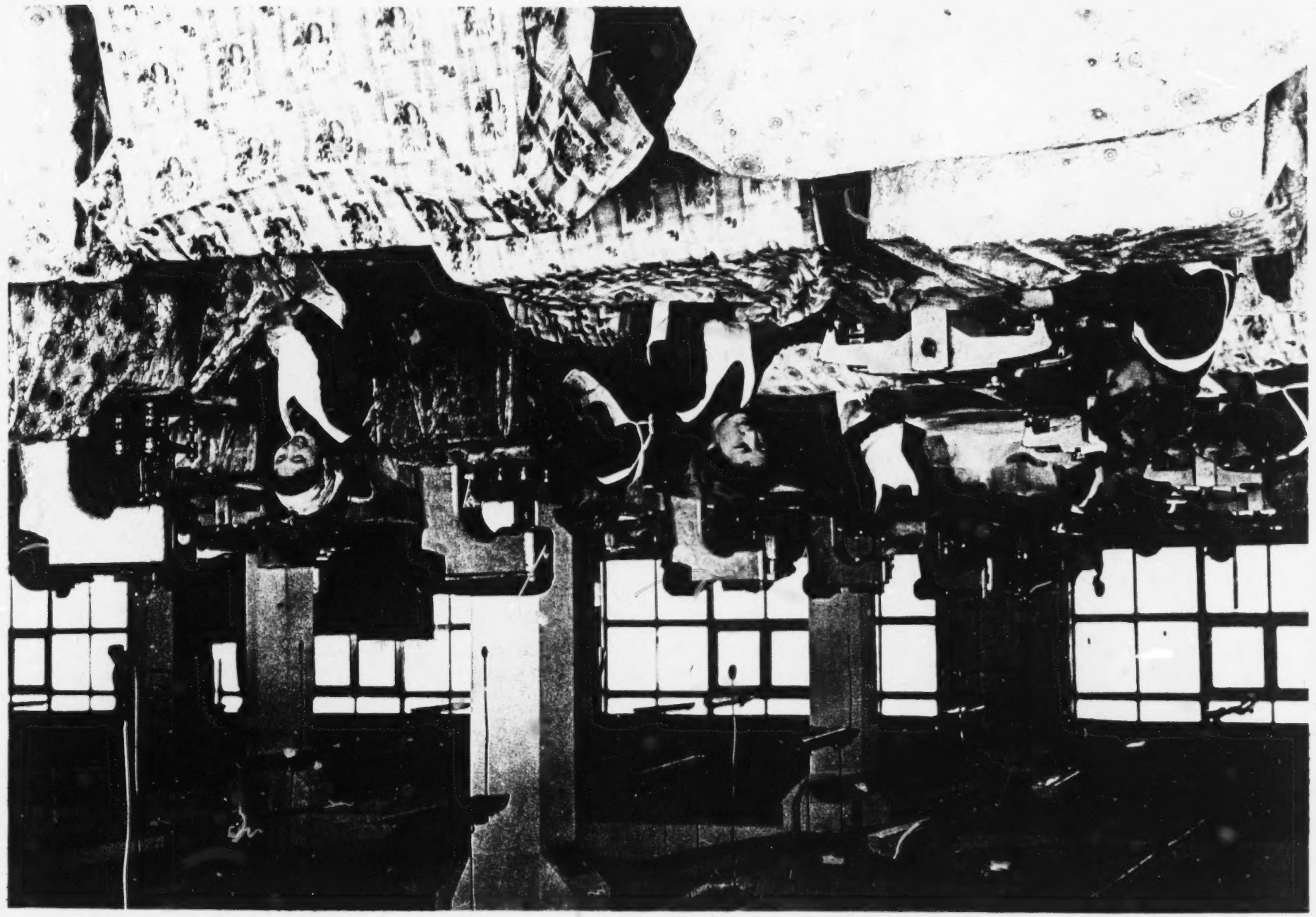
11. 인민회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축청을 당하고 맙니까?
12. 북한의 사법부에서는 공정히 법률을 실시합니까?
13. 인민재판은 어떠한 방식으로하는 재판입니까?
14. 삼권분립이 무엇이며 왜 민주주의정치에 필요합니까?
15. 북한에서는 왜 삼권분립의 원칙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16. 북한에서는 무엇을 국유화 해 버렸읍니까?
17. 북한에서는 누가 노동자를 착취하고있어요?
18. 북한에서는 왜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19. 북한에서는 양곡의 배급상태가 공정하게 되어가고있읍니까?
20. 천리마운동이 무엇입니까?

201

VOCABULARY

실정	実情	real condition
자본가	資本家	capitalist
빈부	貧富	the poor and the rich
차이	差異	difference
폭력	暴力	violence
쫓들리다		to be oppressed
무산자	無産者	proletarian
두목	頭目	boss
정권을잡다		to take power (government)
뒷받침		(indirect) support
독재	独裁	dictatorship
무조건	無條件	unconditional
명령계통	命令系統	chain of command
허울이좋다		to look nice
헌법	憲法	constitution
주권		sovereign power
노동당	勞働党	Labor Party
국회의원	國会議員	Assemblyman
선거하다	選擧	to elect
정당	政党	political party
경쟁	競爭	competition
입후보	立候補	candidacy, being candidate
투표하다	投票	to vote
법정	法廷	court (judicial)
천리마	千里馬	very fast horse



칠흑은 일용품을 다 많이 만들어 보내어 인민들의 생활을 다 좋게 하려는 불타는 심정은 이곳 인민들무기
일하고있는 일용품공장 로동자들의 기술속에서도 한없이 고동치고있다. 사진은 원화비날직장의 모습

Unit 20

북한의 천리마 운동

6·25의 참극을 빚어 낸 북한 괴뢰 도당은, 해방 후에 인민들로부터 긁어 모았던 재산을 모조리 전쟁에 써 버리고, 더 이상 견디어 나갈 수가 없게 되자, 휴전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이 휴전 기간을 이용하여 다시금 군비를 강화하여 남한을 침략할 야심을 품고, 북한 인민들을 들볶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곧 '천리마 운동'이다. 원래 이것은 북한 괴뢰가 처음으로 시작한 착취 방법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소련, 중공 등 공산 국가에서 사용하던 것을 본받은 것이다. 즉, 소련의 소위 '돌격 증산 운동'이라든지, 중공의 '대약진 운동'을 본딴 것이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그 어느 것보다도 혹독한 것이다.

이 천리마 운동은 정말로 경마(競馬)를 시키듯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착스런 착취 방법인 것이다.

그들은 어떤 노동자나 혹은 작업반(作業班)을 내세워 이들이 굉장한 생산 실적을 올렸다고 조작해 놓고는, 이

것을 모범으로 삼아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직장들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고, 나아가서는 그를 앞서라고 채찍질한다. 이렇게 초인간적(超人間的) 경쟁을 시켜 놓고, 이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자에게는 소위 '노동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어 약간의 물질적 우대를 해 준다. 그리고는 그 반면에, 뒤떨어진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따르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과 박해를 하면서, '모범적 선진 노동자를 따르라!'고 무자비한 채찍을 가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작업량의 목표를 몇 배를 초과 달성하는가를 경쟁시켜, 가장 우수한 작업반에게 '천리마'라는 칭호를 붙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칭호를 얻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이 칭호를 딴 반은 그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중 삼중으로 그 칭호를 반도로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중 천리마 운동'이라고 한다. 만일 천리마의 칭호를 받지 못하면 초인적, 살인적인 노동을 하는 이상으로 심한 시달림을 받고, 모멸과 비판을 받게 된다. 공산 세계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숙청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가 혈안이 되어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천리마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친 과 작업반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첫째는, 목표량을 시일 내에 초과 달성해야 할 것이나, 설사 초과 달성하였다 할지라도 그 반원 가운데 낙오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되고, 반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근을 하면 안 되며, 지각은 반원 전체에서 세 번 이상 하면 자연히 실격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연대 책임으로써 초과 생산을 보장해 보자는 속셈에서인 것이다. 특히 반원들 상호간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상대를 독려하고 감시하여, 어떤 경우에는 같은 반원끼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반원을 못 살게 굴도록 하게끔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반원이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거나, 지각을 하여 천리마가 못 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전 반원이 밤낮으로 두고 두고 '너 때문에 천리마가 못 되었다.' 하고 원망하며 공격하게 마련이다. 참으로 이것은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 운동은 노동자들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시키며, 심지어는 문화 단체의 문인, 작곡가, 시인을 비롯하여 의사, 간호원

들에게까지도 이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병이야 낫든 말든 덮어놓고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연대 책임이나 올바른 경쟁 정신이란 '우리들의 민주사회에서도 강조되는 미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덕이 되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올바른 방법으로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 그 결과는 각자에게 이익이 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 사회에서는 이것을 인민을 착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쓰고 있으며, 사람의 자연적 심리를 악용하여 서로 반목(反目)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공산 제도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가를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207

QUESTIONS

1. 6·25의 참극을 빚어낸 북한이 왜 휴전을 제의하게됐어요?
2. 이 휴전 기간을 이용하여 북한에서는 무엇을 시작했어요?
3. 천리마 운동은 무엇을 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입니까?
4. 천리마 운동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5. 천리마운동을 소련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6. 천리마 운동은 중공의 무슨 운동하고 같습니까?
7. 천리마 운동을 왜 잔인한 착취 방법이라고 합니까?
8. 북한에서는 누구에게 노동 영웅이라는 칭호를 줍니까?
9. 북한에서는 누구에게 무자비한 채찍을 가합니까?
10. 천리마 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불여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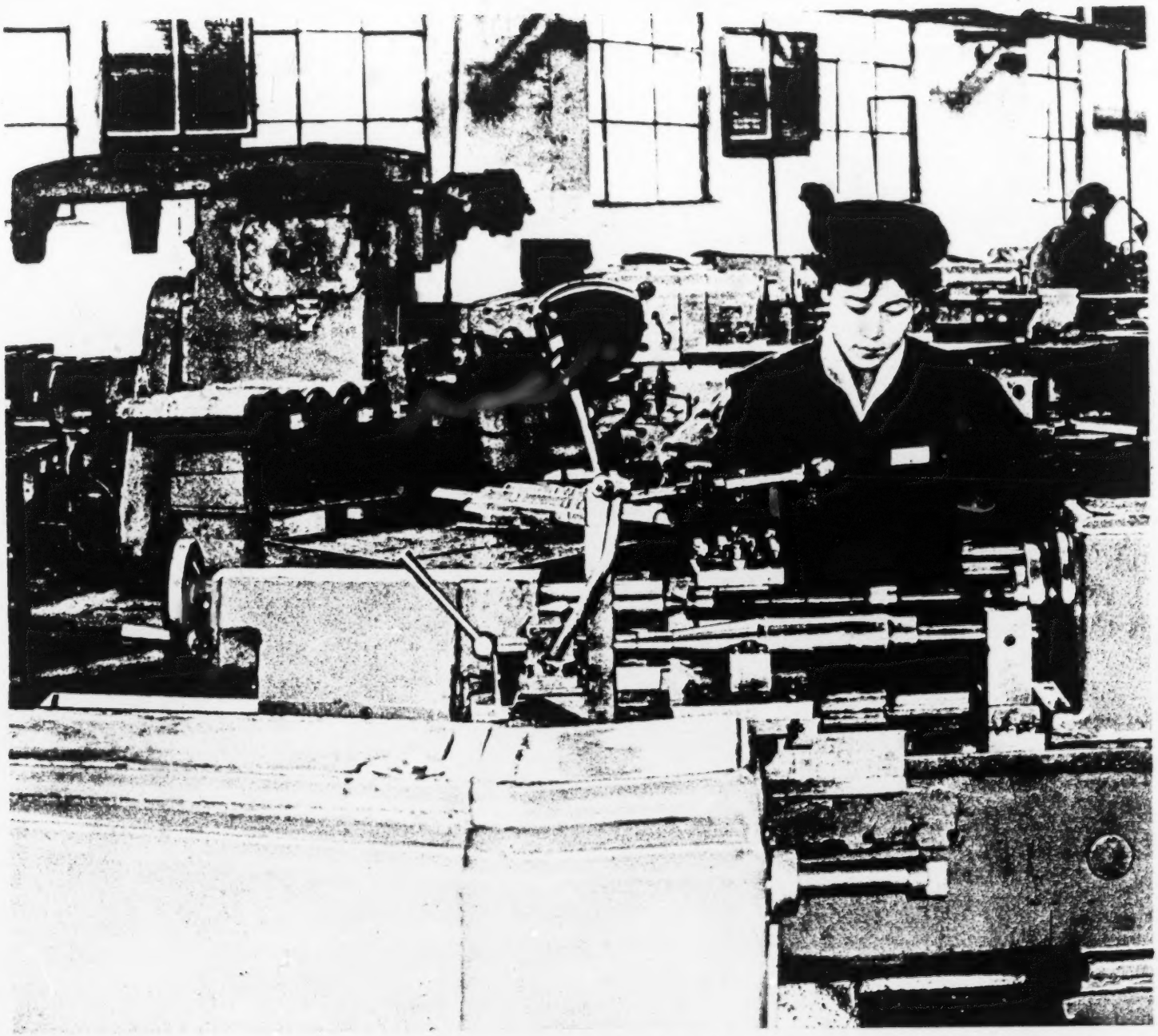
11. 천리마라는 칭호를 한번만 얻으면 그것으로 그칩니까?
12. 무슨 독촉을 '이중 천리마 운동'이라고 합니까?
13. 공산세계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4. 북한사람은 왜 천리마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마련입니까?
15. 반원가운데 낙오자가 몇사람이 안 되면 천리마 작업반이 됩니까?

16. 천리마 작업반이 되기위해서는 지각이 몇번이상이면 안됩니까?
17. 연대 책임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18. 천리마 운동은 노동자들에게만 시킵니까?
19. 천리마 운동때문에 의사들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20. 민주사회와 공산사회를 노동자에 대한 정책면에서 비교하여 보시오.

VOCABUL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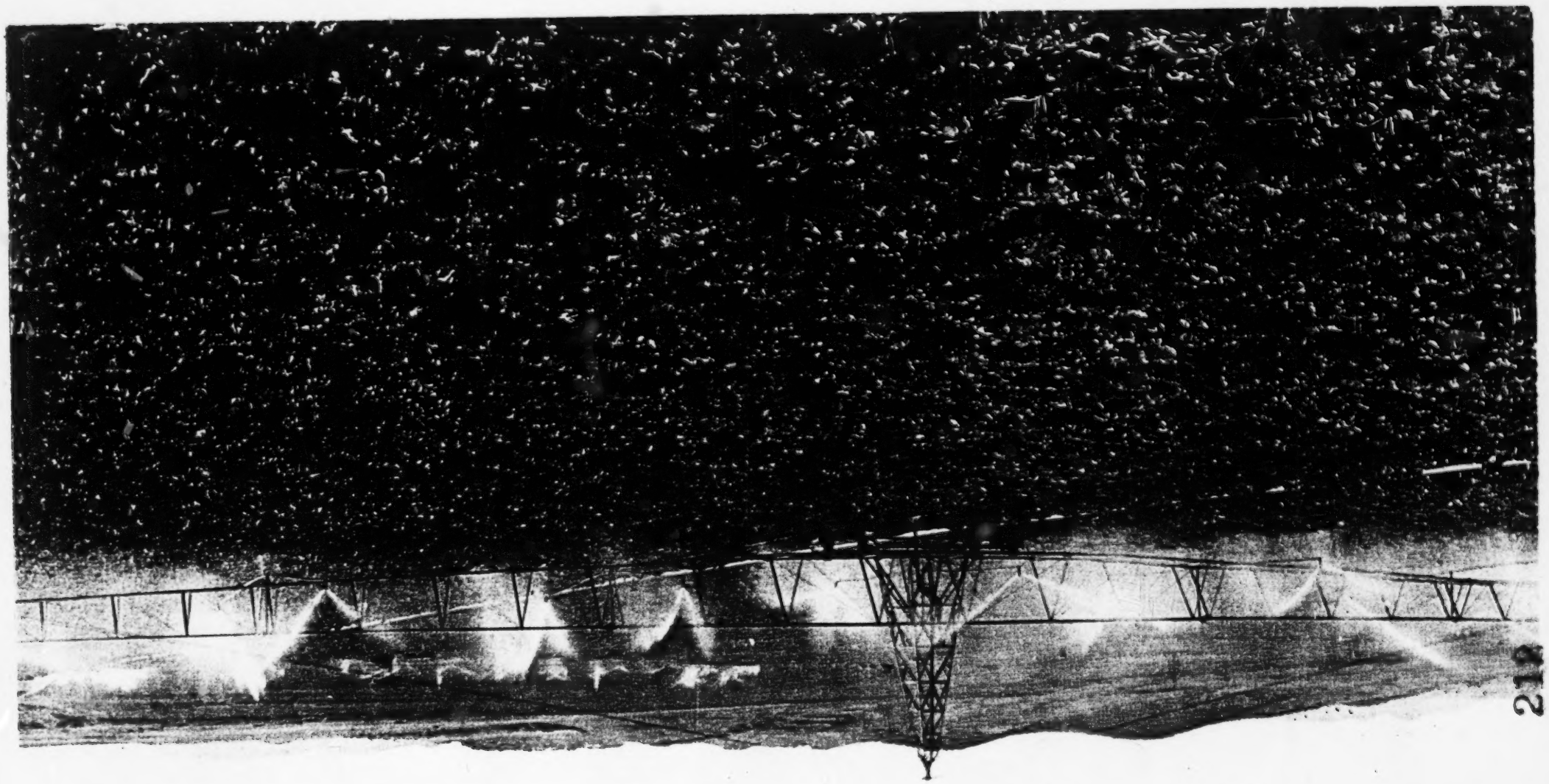
괴뢰		puppet
도당	徒党	band
침략	侵略	invasion
야심	野心	ambition
들볶다		to torment hard
효과	効果	effect
착취하다	搾取	to squeeze out, exploit
고안하다	考案	to plan, design
본받다		to follow the example of
돌격	突撃	assault
증산	增産	increased output
약진	躍進	advance by rushes
혹독하다		to be severe
경마	競馬	horse race
잔인하다	殘忍	to be cruel
악착스럽다		to be stubborn
작업반	作業班	work party
생산	生産	production
실적	実績	record of performance
조작하다	造作	to manufacture
모범	模範	model
직장	職場	place of employment
채찍질하다		to urge on, spur on
초인간	超人間	superman
영웅	英雄	hero

209



조윤민동무가 일하는 기계공장 처녀선반공들은 모두가 다 기능공들이며 혁신자들이다.
그들은 금년 1. 4분기 생산계획도 140 %로 초과수행하였다

식료품상점일군들은 공장로동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고있다



218

205

최근 마대 양조기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여 남새밭에 분수식관수재배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큰 면적에도 로동자들에게 신장동남새를 풍부히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치열한 증산경쟁끝에 기쁨을 나누고있는 천리마한
만준작업반원들,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에 조금도 자
만하지 않는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견인 (고보사관의 보내기 위한 학신의 열감이 세차
게 타오르고있다 전리마강선내광소 인) 관리직장에서